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76357

2014年 8月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論文

중학교 『한문1』교과서 내용 영역별 평가문항 분석

An Analysis of Evaluation Items in the Content of 『Chinese Characters 1』 a textbook for Middle School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李 錦 和

중학교 『한문1』교과서 내용 영역별 평가문항 분석

An Analysis of Evaluation Items in the Content of 『Chinese Characters 1』 a textbook for Middle School

2014年 8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李 錦 和

Collection @ chosun

중학교 『한문1』교과서 내용 영역별 평가문항 분석

指 導 敎 授　韓　睿　嫄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14年 4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李　錦　和

dCollection @ chosun

李錦和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審 査 委 員 長 朝鮮大學校 敎 授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印

2014年 6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Collection @ chosun

目　　次

ABSTRACT ····· vii

Ⅰ. 서　론 ····· 1

1. 연구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2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Ⅱ. 중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변화 ····· 9

1.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특징 ····· 9
2. 2009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특징 ····· 11
3. 2007년 2009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변화양상 ····· 13

Ⅲ. ‘독해’영역 평가에 관한 분석 ····· 18

1. ‘읽기’에 대한 평가 ····· 18
2. ‘이해’에 대한 평가 ····· 25

Ⅳ. ‘문화’영역 평가에 관한 분석 ····· 38

1. ‘한자 문화’에 대한 평가 ····· 38
2.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에 대한 평가 ····· 46

Ⅴ. ‘한문 지식’영역 평가에 관한 분석 ····· 50

dCollection @ chosun

1. ‘한자’에 대한 평가 ····· 50
2. ‘어휘’에 대한 평가 ····· 61
3. ‘문장’에 대한 평가 ····· 70

Ⅵ. 결론 ····· 76

참 고 문 헌 ····· 79

dCollection @ chosun

<표 목 차>

<표1> 본 연구에서 분석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한문1』교과서 ····· 7
<표2> 본 연구에서 분석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한문1』교과서 ····· 7
<표3> 2007년 개정교육과정 내용 체계 ····· 10
<표4> 2009년 개정교육과정 내용 체제 ····· 11
<표5> '내용의 영역과 기준'의 문서 체제변화 비교 ····· 13
<표6> 2007년 2009년 개정교육과정 영역 ····· 14
<표7> 2007년 2009년 개정교육과정 중영역 '읽기' ····· 15
<표8> 2007년 2009년 개정교육과정 '이해' ····· 15
<표9> 2007년 2009년 개정교육과정 '문화' ····· 16
<표10> 2007년 2009년 개정교육과정 '한자' ····· 16
<표11> 2007년 2009년 개정교육과정 '어휘' ····· 17
<표12> 2007년 2009년 개정교육과정 '문장' ····· 17
<표13>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 내용과 학습내용 ····· 18
<표14> 2007개정 『한문1』의 소리 내어 읽기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19
<표15> 2009개정 『한문1』의 소리 내어 읽기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19
<표16> 2007개정『한문1』의 띄어 읽기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21
<표17> 2009개정『한문1』의 띄어 읽기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22
<표18> 2007개정『한문1』의 끊어 읽기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23
<표19> 2009개정『한문1』의 끊어 읽기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24
<표20>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영역 내용과 학습내용 ····· 25
<표21> 2009개정『한문1』의 의미 파악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26

dCollection @ chosun

<표22> 2007개정 『한문1』의 중심 내용 파악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28
<표23> 2009개정 『한문1』의 중심 내용 파악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28
<표24> 2009개정 『한문1』의 지은이의 의도파악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30
<표25> 2009개정 『한문1』의 한시의 형식적인 특징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31
<표26> 2007개정 『한문1』의 한시의 시상 전개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33
<표27> 2009개정 『한문1』의 한시의 시상 전개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34
<표28> 2007개정 『한문1』의 표현 효과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37
<표29>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한자 문화 영역 내용과 학습내용 ····· 38
<표30> 2007개정 『한문1』의 한문문화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39
<표31> 2009개정 『한문1』의 한문문화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40
<표32> 2007개정 『한문1』의 한자문화권 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43
<표33> 2009개정 『한문1』의 한자문화권 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44
<표34>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영역 내용과 학습내용 ····· 47
<표35> 2009개정 『한문1』의 언어생활 한자 어휘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47
<표36>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한자 영역 내용과 학습요소 ····· 50
<표37> 2007개정 『한문1』의 한자학습의 3요소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51
<표38> 2009개정 『한문1』의 한자학습의 3요소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Collection @ chosun

조사 ····· 51
<표39> 2007개정 『한문1』의 한자의 음과 뜻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53
<표40> 2009개정 『한문1』의 한자의 음과 뜻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53
<표41> 2007개정 『한문1』의 부수와 자전학습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55
<표42> 2009개정 『한문1』의 부수와 자전학습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55
<표43> 2007개정 『한문1』의 필순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57
<표44> 2009개정 『한문1』의 필순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57
<표45> 2007개정 『한문1』의 한자의 짜임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58
<표46> 2009개정 『한문1』의 한자의 짜임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59
<표47> 2007개정 『한문1』의 한자의 형성 과정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60
<표48> 2009개정 『한문1』의 한자의 형성 과정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60
<표49>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어휘 영역 내용과 학습내용 ····· 61
<표50> 2007개정 『한문1』의 단어의 짜임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62
<표51> 2009개정 『한문1』의 단어의 짜임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62
<표52> 2007개정 『한문1』의 품사의 종류와 특성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64
<표53> 2009개정 『한문1』의 품사의 정류와 특성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64
<표54> 2007개정 『한문1』의 성어의 겉뜻과 속뜻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66

dCollection @ chosun

<표55> 2009개정 『한문1』의 성어의 겉뜻과 속뜻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67
<표56>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문장 영역 내용과 학습내용 ····· 70
<표57> 2007개정 『한문1』의 문장의 기본 구조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71
<표58> 2009개정 『한문1』의 문장의 기본 구조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71
<표59> 2009개정 『한문1』의 문장의 유형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 74

dCollection @ chosun

ABSTRACT

An Analysis of Evaluation Items in the Content of 『Chinese Characters 1』 a textbook for Middle School

Lee, Kum-Hwa
Adviser : Han, Yae-Won Litt.D.
Major in Sino-Korean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speculated on how changes in the content of the 2009 revised Chinese writing curriculum were reflected in academic evaluations using these textbooks for Grade 1 in middle school. The textbook reflected the changes in the curriculum faithfully as educational material which was published based on the basic ideas of the curriculum.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e educational policy realized and put forth in the curriculum is embodied in actual education, the textbooks should be analysed.

Chapter Ⅱ examined the content systems of the 2007 and 2009 revised

Collection @ chosun

curricula and then the changes in their content were analysed. Furthermore, how changes in content and the standard of evaluation items in the 『Chinese Writing 1』 textbooks for middle school Grade 1 were reflected in the 2007 and 2009 revised curricula including the changes in the content system.

Chapter Ⅲ explained the evaluation items involving 'reading' and 'understanding' in 'reading comprehension.' For the section of 'Reading' three standards were presented: 'students can read words, phrases and sentences out loud and correctly', 'Students can read with spacing so that the meaning is well-expressed', and 'Students can read with pauses attending suffixes.' In the area of 'Understanding', the following six standards were presented: 'Students can understand the meanings of words, phrases and sentences considering the context.', 'Students can understand the core content of what they read.', 'Students can understand the intention of the authors after reading.', 'Students can understand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poetry.', 'Students can understand how poetic ideas are developed after reading Chinese poetry.', and 'Students can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effect of expression in what they read.'

Chapter Ⅳ examined evaluation items involved in 'the culture of Chinese characters' and 'the language life and culture of Chinese characters' in the area of culture. In the area of 'the culture of Chinese characters,' the following two standards were presented: 'Students can understand the wisdom of the ancestors, have a healthy sense of values and desirable personalities, and have an attitude to inherit and develop traditional culture.' and 'By acquiring basic knowledge on the culture of the Sinosphere, students can have an attitude to contribute to mutual understanding and exchange within it.' In the area of 'language life and Chinese character culture', the following standard was

dCollection @ chosun

presented: ‘Students can understand Chinese vocabulary used in language and use it properly.’

Chapter Ⅴ examined evaluation items involving ‘Chinese characters’, ‘vocabulary’ and ‘sentences’ in the area of ′knowledge of Chinese characters.′ For the area of ‘Chinese characters,’ the following six standards were presented: ‘Students know shape · sound · meaning.’, ‘students can learn Chinese characters with different sounds and meanings.’, ‘students can learn accompaniments of Chinese characters and search for them in a dictionary.’ ‘students can read Chinese characters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 of stroke order.’ ‘students can understand the structure of Chinese characters.’ and ‘students can understand the formative process of Chinese characters.’ In the area of ‘vocabulary’, the following three standards were presented: ‘students can understand the structure of words.’, ‘students can understand the kinds and characteristics of parts of speech.’, and ‘students can understand outward and inward meanings of idioms.’ Finally, in the area of ‘sentences’, the following two standards were presented: ‘students can understand the basic structure of sentences.’, and ‘students can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declarative sentences · interrogation sentences · imperative sentences · and exclamatory sentences.’

Chapter Ⅵ organized the discussion of the study and concluded how the curriculum was reflected in evaluation items of textbooks. This study has meaning in that it described the objectives and reality of evaluation in each textbook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evaluation items, and presented proper directions for realization of educational goals.

Collection @ chosun

Ⅰ. 서 론

1. 연구 목적

‘평가’는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학습자가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평가’는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그리고 ‘내용 체계’, ‘성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된다. 따라서 평가는 교육과정 전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한다.[1] 평가를 시행하여 얻은 평가 결과로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진단할 수 있다. 그 결과 학습자의 한문 학습 능력의 정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학습자의 한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도 도움을 준다.

현대 사회는 지식 정보화 시대로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정 또한 국제화를 비롯한 사회 여건의 변화, 교육 이론이나 프로그램 발전 등의 외적조건과 교육 현장의 내적인 필요에 의하여 사회적·국가적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개정되어 왔다. 한문 과목에서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한문 과목은 국어 교육의 일부로 존속되었다가 1972년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 한문 교육이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교과 교육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7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2013년부터 2009년 한문과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한문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 학습 방법’, ‘평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평가’도 국제화를 비롯한 사회 여건의 변화, 교육 이론 등의 외적조건, 그리고 교육 현장의 내적인 필요에 의해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평가’ 부분에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었으며, ‘평가’ 부분

1) 장호성·김경익, 『한문과 평가론』, 보고사, 2012, 9쪽, 참조.

dCollection @ chosun

은 '평가 계획', '평가 목표와 내용', '평가 방법' 그리고 '평가 결과의 활용'으로 세분화되어졌다. 평가 목표의 경우,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의 영역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고, 평가의 주체, 대상, 내용, 기준, 방법, 시기 등 교수·학습의 구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2)]

여기서 '평가'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의 영역과 기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의 기본 정신에 알맞게 편찬한 교육 자료로서[3)],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구현된 교육정책이 어떻게 교육 현실에 구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분석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가영역"은 교육목표 실현을 위하여 구성된 교육내용체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평가는 교육내용이 학습활동을 통하여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평가영역을 분석하면 교과서 저자의 교육과정 이해도 및 교육목표 구현의 의지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문교과서의 평가영역 비교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하여 교과서별 평가의 목표와 실재를 확인하고, 나아가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본고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내용체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한문과 평가에 관한 연구이다. 두 번째는 한문과 평가 문제에 관한 연구이다.

첫째, 중학교 한문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이다. 여기서는 현재 7차 교

2) 교육부,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215쪽.
3) 강주현, 「중학교 한문과 학습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3쪽.

dCollection @ chosun

육과정 중,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연구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연구이다.

원용석은 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은 내용체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았다. 내용체계를 '한문', '한문 지식'으로 나누어진 점에서, 대영역 구분을 일단 언어학적으로 접근했다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였다. '한문'영역의 '읽기'와 '이해'는 현재 언어학에서는 모두 '읽기'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해'의 영역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였다. '어휘'가 '한자'와 '한문'의 중간적인 역할을 담당해내는 용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4)]

안재철은 7차 개정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성격', '목표', '내용'으로 나누어 지적하였다. '성격'은 한문 교과만이 지닌 언어적 특성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목표'는 한문교육용 1,800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다양하고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가 제작되도록, '목표' 속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내용'에 대한 문제는 '한문'과 '한문지식'영역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한문' 영역에서는 '한문' 영역의 명칭문제와 '읽기'와 '이해'의 포함문제, '문화'의 성격 및 내용문제가 있었다고 보았다. '한문지식' 영역에서는 '어휘'에 관한 용어 및 내용포함 문제, '보어'의 문제, '문형(文形)'의 설정 기준 및 내용 문제 등을 들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해결된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반영된다면, 바람직한 한문과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5)]

윤재민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개관해 보고, 2009년 개정 교육과정 '독해' 영역 '이해'의 각 학습 내용 성취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2007년 교육과정과 그 해설서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6)]

둘째, 2009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새로 정립된 내용체계에 따른 평가문제에 관한 연구이다. 강주현은 7차 교육과정 한문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현재 한

---

4) 원용석, 「개정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고찰」, 『강원문화연구』 26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7.
5) 안재철,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의 문제점」, 『한자한문교육』 24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0.
6) 윤재민,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분석과 향후 과제」, 『한문교육연구』 39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2.

dCollection @ chosun

문 수업시간에 시행되는 평가를 알아보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평가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한문 교과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7]

조성균은 교과서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중학교 『한문1』 15종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방식과 영역별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한문과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한문 교과서 편찬에 일조하고, 보다 발전적인 한문 교육을 기대하고자 하였다.[8]

안명숙은 창의력 신장을 돕는 중학교 한문의 평가 부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평가가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 창의력 신장을 돕는 교수·학습 방법 부분을 원리와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중학교 한문과 평가 내용과 문항 분석을 통하여 '한자', '한자어' '한문' 영역별로 창의력 신장을 돕는 실제 평가 문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9]

고승희는 평가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교수·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문과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먼저, 6차와 7차 중학교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평가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 실린 평가 문항을 검토하여 개선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평가 문항을 개선한 시안을 제시하였다.[10]

허연구는 평가 문항과 관련된 교육학과의 기본 저서를 참고로, 한문과 실정에 맞는 평가 문항의 기본 형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문 교과서 문항과 국가수준의 한문 평가 문항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2007년 고등학교 한문 개정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해설서를 평가요소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내용 영역에 적합한 평가 문항 유형을 분석하고 분류하였다.[11]

---

7) 강주현, 앞의 논문.
8) 조성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한문1』 교과서 영역별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9) 안명숙, 「창의력 신장을 돕는 중학교 『한문』 평가 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0) 고승희, 「중학교 한문과 학습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dCollection @ chosun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지만,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한문과 평가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과 논의는 한문 교육의 평가문항에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과서를 횡단적으로 분석하면서 저자들의 교육과정에 과한 입장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한문교과서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저자들을 중심으로 3종류의 한문교과서의 평가 부분을 교육내용체계의 영역별로 분류하여 횡단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고는 2009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의 변화가 중학교 1학년 한문교과서 학습평가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문과 교육과정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제5차 한문과 교육과정부터는 대영역을 '한자', '한자어', '한문'이라는 내용 체계를 유지해오다가,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부터는 '한문', '한문 지식'의 영역으로 바뀌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09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내용 체계의 변화가 있었다. 이는 2007년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한문'영역의 중영역에 속하던 '문화'영역이 2009년 교육과정에서부터는 대영역으로 독립되어 나오면서 '독해', '문화', '한문 지식'이라는 내용체계로 바뀌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선 Ⅱ장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보이는 내용체계를 검토한 후,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변화양상을 살펴보면서 개정된 중학교『한문1』교과서의 평가문항에 '내용의 영역과 기준'의 변화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1) 허연구,「漢文科 領域別 評價 問項 類型의 硏究」,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dCollection @ chosun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한문1』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15종이다.[12] 그리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한문1』 교과서는 14종이다.[13]

본 연구에서는 2007년 개정『한문1』과, 2009년 개정『한문1』의 저자가 동일한 교과

---

12)

구분	출판사	저자
A	금성출판사	이명학, 강민구, 이군선, 오예승
B	**다락원**	**송재소, 조병덕, 배기표, 김호기, 변유경**
C	대교	심경호, 송혁기, 송태명
D	**더텍스트**	**김용재, 류준필, 류준경, 권오순**
E	동화사	이상진, 최상근, 이지곤
F	**두산동아**	**박성규, 윤재민, 정동운, 장진아**
G	미래앤컬처그룹	안재철, 원용석, 김은경, 김동규
H	민중서림	장윤형, 김성수
I	비상교육	이동재, 안영길, 최종찬, 허연구
J	장원교육	진재교, 신영주, 최돈욱, 임성원
K	장원교육	김홍철, 신태영, 강태선, 이계원, 김정훈, 오국진
L	지학사	김상홍, 이강렬, 박세경, 한상조, 김우정, 김진봉
M	지학사	황형주, 김명수, 최호영, 신사필, 안준용
N	천재교육	이희목, 김병건, 송요권, 최식
O	천재교육	정환국, 안기봉, 황성하, 양재훈, 이한신, 장현곤

*강조체 부분은 본 논문의 분석대상이 되는 교과서임(이하 동일)

13)

구분	출판사	저자
A	교학사	김언종, 조영호, 김혜진, 김주화, 임재범
B	**다락원**	**송재소, 조병덕, 배기표, 김호기, 변유경**
C	대교	심경호, 송혁기, 송태명, 송성립
D	대학서림	이병주, 박영숙, 윤미정
E	디딤돌	이상진, 최상근, 이지곤
F	동화사	김혈조, 송병렬, 임완혁, 정은진, 김봉남, 김경자, 서원진, 김인서
G	**두산동아**	**박성규, 윤재민, 정동운, 장진아**
H	미래앤컬처그룹	안재철, 원용석, 김은경, 김동규, 임동헌, 홍은정, 이우경
I	비상교육	이동재, 김병철, 최종찬, 허연구, 정효영
J	성림출판사	소영일, 엄선용, 심재경, 이규원
K	**와이비엠**	**김용재, 류준필, 류준경, 권오순**
L	장원교육	진재교, 신영주, 최돈욱, 최호영
M	천재교과서	안대회, 안기봉, 황성하, 이한신, 장현곤, 서문기, 주성민
N	천재교육	김영주, 주석준, 이도혁, 최중형, 이용훈, 라미애, 박희은

dCollection @ chosun

서로 선택하여 평가문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동일저자를 고찰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얼마나 충실히 수용하고 있는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따라서 다락원, 두산동아, 와이비엠에서 출간된 3종의 중학교 『한문1』 교과서가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된다. 단, 더텍스트 출판사에서 출간된 2007년 개정『한문1』은 2009년 개정『한문1』에서는 출판사의 이름이 와이비엠으로 변경되었다. 아래는 본 연구에서 분석할 2007년 개정『한문1』과 2009년 개정『한문1』의 교과서를 정리한 표이다.

<표1> 본 연구에서 분석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한문1』 교과서

구분	출판사	저자
A	다락원	송재소, 조병덕, 배기표, 김호기, 변유경
B	두산동아	박성규, 윤재민, 정동운, 장진아
C	더텍스트	김용재, 류준필, 류준경, 권오순

<표2> 본 연구에서 분석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한문1』 교과서

구분	출판사	저자
A-1	다락원	송재소, 조병덕, 배기표, 김호기, 변유경
B-1	두산동아	박성규, 윤재민, 정동운, 장진아
C-1	와이비엠	김용재, 류준필, 류준경, 권오순

먼저 Ⅱ장에서는 2007년 한문과 개정 교육과정과의 내용체계의 분석을 한 다음 2009년 한문과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분석해보면서 어떠한 변천양상을 드러내었는지를 고찰한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독해'영역의 중영역 '읽기'와 '이해' 관련 평가문항을 살펴보고자한다. '읽기'는 '단어, 구절, 문장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글을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다.', '토의 구실에 유의하여 글을 끊어 읽을 수 있다.'의 세 가지 성취 기준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이해'는 '문맥을 고려하

dCollection @ chosun

여 단어, 구절,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글을 읽고 지은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한시의 형식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한시를 읽고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글에 나타난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의 여섯 가지 성취 기준으로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문화'영역의 중영역 '한자 문화'와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관련 평가문항을 살펴보고자한다. '한자 문화'는 '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의 두 가지 성취 기준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는 '언어생활에 사용된 한자 어휘를 이해하고 뜻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의 성취 기준으로 살펴본다.

Ⅴ장에서는 '한문지식'영역의 중영역 '한자'와 '어휘'와 '문장' 관련 평가문항을 살펴보고자한다. '한자'는 '한자의 형(形)·음(音)·의(義)를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있다.', '한자의 부수(部首)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 '필순(筆順)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한자를 쓸 수 있다.' '한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 '한자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의 여섯 가지 성취 기준으로 살펴본다. '어휘'는 '단어의 짜임을 알 수 있다.',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알 수 있다.', '성어의 겉뜻과 속뜻을 이해할 수 있다.'의 세 가지 성취 기준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문장'은 '문장의 기본 구조를 알 수 있다.', '평서문·의문문·명령문·감탄문의 특징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의 두 가지 성취 기준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Ⅵ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연구의 논의를 정리하고, 교육과정이 교과서의 평가문항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정리한 후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dCollection @ chosun

Ⅱ. 중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변화

1.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의 특징

제5차 교육과정 이래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적용되어 온 '한자', '한자어', '한문'의 세 영역 체제는 영역들의 내포와 외연이 불분명하고 영역 설정의 기준 또한 모호하였다. 그리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문'과 '한문지식'의 두 영역 체제를 제시하였다.[14]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하위 항목에 중영역의 성격을 부여하여 영역-중영역-내용요소가 한문과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준거로 체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용 체계의 내용을 크게 수정·보완하였다.[15] 아래 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이다.

14) 안재철, 앞의 논문, 10쪽.
15) 안재철, 앞의 논문, 15쪽.

dCollection @ chosun

<표3> 2007년 개정교육과정 내용 체계

영 역	내 용	
한 문	읽 기	단문의 읽기와 풀이
		산문의 읽기와 풀이
		한시의 읽기와 풀이
	이 해	단문의 이해와 감상
		산문의 이해와 감상
		한시의 이해와 감상
	문 화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한 문 지 식	한 자	한자의 특징
		한자의 짜임
		한자의 역사
	어 휘	단어의 형성
		단어의 갈래
		어휘와 의미
	문 장	문장의 구조
		문장의 유형
		문장의 수사

먼저, ‘한문’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자. ‘한문’ 영역은 ‘읽기’, ‘이해’, ‘문화’ 3가지 중영역으로 구성된다. 한문영역의 ‘읽기’와 ‘이해’에서는 단문・산문・한시의 장르의 차이만 있을 뿐, ‘읽기’ 영역에서는 ‘읽기와 풀이’를 중심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에서는 ‘이해와 감상’을 내용 요소로 설정하였다.

‘한문 지식’ 영역은 ‘한자’, ‘어휘’, ‘문장’ 3가지 중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한자’는 한자의 특징, 짜임, 역사의 내용으로 설정되고, ‘어휘’는 단어의 형성, 갈래, 의미의 내용을 설정되었다. ‘문장’은 문장의 구조, 유형, 수사의 내용을 설정하였다. 한문과 한문지식이라는 대영역 구별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가 생기게 된 이유는 한자 교육목표가 ‘한자어’ 학습에서 ‘한문독해’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교육현장에 이런 내용체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한문과 한문지식의 영역구분이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이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dCollection @ chosun

2. 2009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의 특징

2009년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이 먼저 제시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중학교 교육목표'를 제시한 다음, 한문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 시작된다. 2007년 교육과정은 '성격'과 '목표'로 구분되어있지만, 2009년 교육과정에는 '성격'과 '목표'가 합쳐져 '성격'이 '목표'의 일부분으로 설명되어있다.

2007년 교육과정에서의 '내용'은 2009년 교육과정에 와서는 '내용의 영역과 기준'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명칭으로 바뀌었다. '내용 체계'부분의 '영역'을 보면, 기존 2007년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의 '영역'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의 '영역'을 보면 '한문'과 '한문 지식' 두 가지로 나뉘지만, 2009년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의 '영역'을 보면 '독해', '문화', '한문 지식' 세 가지로 나뉜다. 2007년 교육과정 '한문'영역에 속해 있던 중영역의 '문화'가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와서는 '문화'라는 영역으로 독립되었다. 아래 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이다.

<표4> 2009년 개정교육과정 내용 체제

영 역	내 용	
독 해	읽기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
	이해	풀이하기
		이해하기
		감상하기
문 화	한자 문화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
한 문 지 식	한자	한자의 특징
		한자의 짜임
	어휘	단어의 짜임
		단어의 갈래
		성어의 의미
	문장	문장의 구조
		문장의 유형

dCollection @ chosun

대영역은 ‘한문’, ‘문화’, ‘한문 지식’으로 나누어졌다. 그 중 ‘독해’ 영역은 ‘읽기’, ‘이해’의 내용으로 설정하고, ‘문화’ 영역은 ‘한자 문화’,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의 내용으로 설정하였으며, ‘한문 지식’ 영역은 ‘한자’, ‘어휘’, ‘문장’으로 설정하였다.

‘독해’ 영역은 ‘읽기’, ‘이해’의 내용으로 설정하였고, ‘읽기’는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의 내용으로 나누고, ‘이해’는 ‘풀이하기’, ‘이해하기’, ‘감상하기’의 내용으로 나누었다. 이 독해영역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한문영역 중 ‘읽기’, ‘이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단문, 산문, 한시라는 한문학의 기본 장르를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는 활동에 주안점을 두었던 반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문학의 기본 장르 구별 없이 다양한 한문을 독해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학습 활동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영역은 ‘한자 문화’,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의 내용으로 설정하였고, ‘한자 문화’는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의 내용으로 나누고,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는 ‘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로 나누었다. 이 문화영역은 2007년에는 ‘한문’영역 중 하나의 중영역으로 속해있었다. 반면 2009년 개정에서는 독립하여 독해와 한문지식 사이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화 위상의 변화는 결국 ‘한문’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문’은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기록하였던 문자일 뿐 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공용문자이었다는 자각이 수면 위로 부각된 결과이다. 또한 한자 어휘는 현재 한국어라는 우리글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자각하여 한국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자문화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포한 결과이다.

‘한문 지식’ 영역은 ‘한자’, ‘어휘’, ‘문장’의 내용을 설정하였다. ‘한자’는 ‘한자의 특징’, ‘한자의 짜임’의 내용으로 나누고, ‘어휘’는 ‘단어의 짜임’, ‘단어의 갈래’, ‘성어의 의미’로 나누었으며, ‘문장’은 ‘문장의 구조’, ‘문장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 부분은 대체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선 한자 학습에서 어려운 부분이 ‘한자의 역사’를 독립시키지 않고 있다. ‘한자의 역사’는 ‘한자 글자체의 변화’와 구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시대별 변화를 좇으면 서로 유사한 면도 있지만, 서로 충돌하는 면도 있다. 이에 2009

dCollection @ chosun

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장의 수사'도 2009년 교육과정에서는 생략되었는데 이는 전문적인 문장훈련을 받지 못하는 중학생들에게는 과다한 학습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문장의 수사'는 '문장의 유형'과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 학습자에게는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말 할 수 있다.

3. 2007년과 2009년 개정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변화양상

2007년 개정교육과정 '내용'과 2009년 개정교육과정 '내용의 영역과 기준'의 문서 체제변화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5> '내용의 영역과 기준'의 문서 체제변화 비교

2007년 개정교육과정	2009년 개정교육과정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가. 내용 체계
3. 내용	나. 중학교 1~3학년군별 성취 기준
가. 내용체계	다. 영역 성취 기준
나. 영역별 내용	(1) 독해
<1학년>	(2) 문화
-한문-	(3) 한문 지식
<읽기>	라. 학습내용 성취 기준
<이해>	-독해-
<문화>	<읽기>
-한문지식-	<이해>
<한자>	-문화-
<어휘>	<한자 문화>
<문장>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2학년>, <3학년>	-한문 지식-
<1학년>과 동일함.	<한자>
	<어휘>
	<문장>

dCollection @ chosun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내용의 영역과 기준'으로 명칭이 변경하고 구성 요소 또한 '가. 내용 체계'와 '나. 영역별 내용'을 '가. 내용 체계', '나. 중학교 1~3학년군별 성취 기준', '다. 영역 성취 기준'으로 바뀌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나. 영역별 내용'을 1학년~3학년을 나누어서 학년별로 내용의 수준을 다르게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 중학교 1~3학년군별 성취 기준', '다. 영역 성취 기준', '라. 학습내용 성취 기준'으로 나누어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년별로 차이를 둔 것과는 달리 1학년~3학년군별, 영역, 학습내용의 성취 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아래의 표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영역을 비교한 표이다.

<표6> 2007년 2009년 개정교육과정 영역

2007년 개정교육과정영역	2009년 개정교육과정영역
한문	독해
	문화
한문 지식	한문 지식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한문'과 '한문지식'의 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 '한문'영역의 중영역인 '문화'가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와서는 '문화'라는 영역으로 독립되어지면서,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독해', '문화'와 '한문지식'의 세 영역으로 나뉘게 된다. 내용 체계의 영역 및 중영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내용 요소의 성격과 그 내용 또한 일부 바뀌었다.[16]

다음으로는 중영역인 '읽기'를 표로 비교해보았다.

16) 윤재민, 앞의 논문, 13쪽.

dCollection @ chosun

<표7> 2007년 2009년 개정교육과정 '읽기'

2007년 개정교육과정		2009년 개정교육과정	
읽 기	단문의 읽기와 풀이	읽 기	소리 내어 읽기
	산문의 읽기와 풀이		끊어 읽기
	한시의 읽기와 풀이		

2007년 교육과정의 읽기의 학습 요소를 '단문의 읽기와 풀이', '산문의 읽기와 풀이', '한시의 읽기와 풀이'로 제시하였으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소리 내어 읽기'와 '끊어 읽기'로 제시하였다. 2007년 교육과정은 한문 텍스트를 '단문, 산문, 한시'로 나누고, 학습 요소를 '읽기와 풀이'로 제시하여 학습 내용 요소로 삼은 것이다.[17] 반면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읽기'는 텍스트의 구분은 따로 두지 않고,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로 읽기의 내용을 세분화하였다.

아래 표는 중영역인 '이해'를 비교한 표이다.

<표8> 2007년 2009년 개정교육과정 '이해'

2007년 개정교육과정		2009년 개정교육과정	
이 해	단문의 이해와 감상	이 해	풀이하기
	산문의 이해와 감상		이해하기
	한시의 이해와 감상		감상하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이해'의 내용 요소로 '풀이하기', '이해하기', '감상하기'의 내용 요소로 선정하였다. 이는 2007년 교육과정 '한문' 영역 '읽기', '이해'의 내용 요소 중에서 단문, 산문, 한시 등 텍스트 요소를 제외하고, 또 '읽기'의 내용 요소 '읽기와 풀이' 중에서 '풀이' 요소를 '이해'의 내용 요소로 옮긴 것이다.[18]

아래 표는 '문화'영역을 비교한 표이다.

17) 송병렬,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읽기' 영역의 내용 분석과 향후 과제」, 『한문교육연구』 39권, 한문교육연구 39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2, 100쪽.
18) 윤재민, 앞의 논문, 25쪽.

dCollection @ chosun

<표9> 2007년 2009년 개정교육과정 '문화'

<table>
<tr><th colspan="3">2007년 개정교육과정</th><th colspan="3">2009년 개정교육과정</th></tr>
<tr><td rowspan="2">독해</td><td rowspan="2">문 화</td><td>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td><td rowspan="3">문화</td><td rowspan="2">한자 문화</td><td>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td></tr>
<tr><td rowspan="2">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td><td>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td></tr>
<tr><td>언어생활과 한자 문화</td><td>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td></tr>
</table>

2007년 개정교육과정 '한문'의 중영역에 속하던 '문화'가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대영역 '문화'로 독립되어졌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중영역의 경우, 한문과에서 활용의 예가 많은 '한자 문화'란 용어를 이번 교육과정에서 중영역의 하나로 설정했는데, '문화' 영역의 개념, 범위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특히, 이전 교육과정에서 대영역 '한문 지식'의 중영역 가운데 하나인 '어휘'의 내용 요소였던 '어휘와 의미', 그리고 내용 요소에 따른 영역별 내용인 '어휘의 유형을 알고 활용 할 수 있다.',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다.'를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로 총합, 수용했다.[19] 교과 내적으로, 2007년 개정,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문화'영역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아래 표는 중영역인 '한자'를 비교한 표이다.

<표10> 2007년 2009년 개정교육과정 '한자'

<table>
<tr><th colspan="2">2007년 개정교육과정</th><th colspan="2">2011년 개정교육과정</th></tr>
<tr><td rowspan="3">한자</td><td>한자의 특징</td><td rowspan="3">한자</td><td>한자의 특징</td></tr>
<tr><td>한자의 짜임</td><td rowspan="2">한자의 짜임</td></tr>
<tr><td>한자의 역사</td></tr>
</table>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중영역 '한자'는 '한자의 특징', '한자의 짜임', '한자의 역

19) 김왕규,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문화'영역의 내용 분석과 향후 과제」, 『한문교육연구』 39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2, 129쪽.

Collection @ chosun

사'로 내용 요소로 되어있다. 하지만, 2011년 개정교육과정에 와서는 '한자의 역사'의 내용 요소가 빠지고, '한자의 특징'과 '한자의 짜임'이 내용 요소로 선정되었다.

아래 표는 중영역인 '어휘'를 비교한 표이다.

<표11> 2007년 2009년 개정교육과정 '어휘'

2007년 개정교육과정		2009년 개정교육과정	
어휘	단어의 형성	어휘	단어의 짜임
	단어의 갈래		단어의 갈래
	어휘의 의미		성어의 의미

2007년 개정교육과정 중영역 '어휘'는 '단어의 형성', '단어의 갈래', '어휘의 의미'로 내용 요소로 되어있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 중영역 '어휘'에서는 '단어의 형성'의 내용 요소가 빠지고 '단어의 짜임' 내용 요소가 추가되었다.

<표12> 2007년 2009년 개정교육과정 '문장'

2007년 개정교육과정		2009년 개정교육과정	
문장	문장의 구조	문장	문장의 구조
	문장의 유형		문장의 유형
	문장의 수사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중영역 '문장'은 '문장의 구조', '문장의 유형', '문장의 수사'의 내용 요소로 되어있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문장의 수사' 내용 요소가 빠지고, '문장의 구조', '문장의 유형' 두 가지 내용 요소만 선정되었다.

dCollection @ chosun

Ⅲ. ‘독해’에 관한 평가분석

1. ‘읽기’에 대한 평가

평가 목표와 내용에 독해 영역의 ‘읽기’는 단문, 산문, 한시의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와 있다.’[20]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읽기’에 대한 내용과 학습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13>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 내용과 학습내용

내용	학습내용
읽 기	단어, 구절, 문장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글을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다.
	토의 구실에 유의하여 글을 끊어 읽을 수 있다.

위의 표에서는 읽기 방면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문장은 단어로 세분되고, 단어와 단어가 결합되어 구절을 이루어 하나의 의미완결체로서 문장을 이룬다.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단어와 구절 문장의 읽기를 제시한다. 글을 읽을 때에는 한자와 한자 사이의 결합 관계뿐만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의 결합관계에 유의하여 띄어 읽어야 글을 의미를 잘 이해 할 수 있다. 현토는 한문을 읽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토를 다는 것을 ‘현토’라고 하는데, 현토되어 있는 문장은 토의 구실에 유의하면서 바르게 끊어 읽게 되면 문장의 의미를 파악 할 수 있다.

(1) 단어, 구절, 문장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아래는 ‘단어, 구절, 문장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하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20)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18쪽.

dCollection @ chosun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어, 구절, 문장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의 성취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한문 단문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한문 산문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한시를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의 영역별 내용은 제시되어 있다. 아래는 A-1교과서, B-1교과서, C-1교과서에서 '한문 단문・한문 산문・한시를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제시한 단원과 학습 목표에 부응하는 평가문항을 제시하고 있는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표14> 2007개정『한문1』에서 소리 내어 읽기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	
B	**7. 꽃과 새 8. 다정다감 10. 열 명이 못 지킨 한 도둑** 13. 강이 푸르니 **19 책을 빌려 주다**
C	一. 山靑 2. 月明 4. 水流花開

* 강조체 부분은 학습목표에 관련된 평가문항도 나온 단원(이하 동일)

A교과서는 '한문 단문・한문 산문・한시를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없다. B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5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4개의 단원에 제시되어있다. C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3개의 단원이지만,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모두 제시되지 않았다.

<표15> 2009개정『한문1』에서 소리 내어 읽기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5. 나의 학교 생활 8. 숫자가 들어간 성어 9. 동물이 들어간 성어 10. 우정과 관련 있는 성어 11. 俗談 속담 12. 格言 격언13. 名言・名句 명언・명구 15. 不欲食言 불욕식언 20. 宮城 궁성 22. 李舜臣 이순신 32. 始祖 東明聖王 시조 동명성왕
B-1	**5. 난형난제**
C-1	1. 선과 점이 모여 2. 그림으로 나타낸 한자 4. 뜻과 뜻이 만나면

A-1교과서의 '단어, 구절, 문장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d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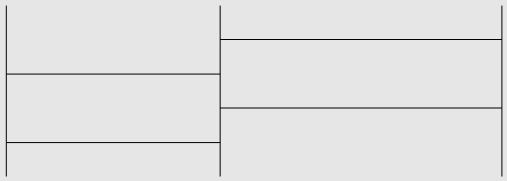
제시한 단원은 모두 11개의 단원이지만,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제시되지 않았다. B-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한 개 단원 뿐 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제시되어있다. C-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3개의 단원이지만,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교과서들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학습내용이 학습목표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단원평가에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단원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실제로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평가문항의 예시와 그것에 대한 분석이다. B교과서와 나와 있는 평가문항을 살펴보자.[21]

아래 □안의 글자와 연결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알맞은 음과 뜻에 ∨표시를 해 보자.

知 者 樂 水 仁 者 樂 山



□(요) 좋아하다 □(~한) 사람 □알다

□(락) 즐겁다 □(~한) 것 □지혜롭다

위에 문항은 문장에 쓰인 한자를 문맥의 의미에 따라 음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즉 문맥의 의미에 맞게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문항이다. 방법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사다리타기를 하여 문장에 쓰인 한자의 소리를 바르게 읽을 수 있는지 묻고 있다.

다음은 B-1교과서에 나온 평가문항이다.[22]

21) 박성규 외 3인, 『한문1』, 두산동아, 2010, 44쪽.
22) 박성규 외 3인, 『중학교 한문』, 2013, 37쪽.

dCollection @ chosun

아래 □ 안 글자의 음과 뜻을 그림에서 찾아 써 보자.

↱ □

· 知 者, 樂 水, 仁 者, 樂山.

↳ □ ↳ □

B교과서에서는 사다리타기를 통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문제를 풀었지만, B-1교과서에서는 한자의 음과 뜻을 그림에서 골라 쓰도록 하였다. 위의 문항은 '樂'의 음이 뜻에 따라 바뀌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문맥의 의미를 파악할 때 가능함을 평가하는 것이다.

(2)글을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다.

아래는 '글을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하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표16> 2007개정『한문1』에서 띄어 읽기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	
B	
C	15. 해는 어디에 뜰까?

A교과서와 B교과서에서는 '글을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없었다. B교과서에서는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없다. C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제시되어있다.

dCollection @ chosun

<표17> 2009개정『한문1』에서 띄어 읽기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26. 金剛山 금강산 27. 絶句 절구 28. 送人 송인 29. 訪金居士野居
B-1	15. 고향 생각 16. 산길에서
C-1	

A-1교과서의 '글을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4개의 단원이다. 각 단원별 평가문항에는 글의 의미에 알맞게 띄어 읽기에 관한 평가문항보다는 문장에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정확히 알아 바르게 읽거나, 한시를 형식에 알맞게 읽는 평가문항만이 나와 있다. B-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2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C-1교과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먼저, C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을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다'와 관련된 평가문항을 살펴보자.[23]

> 다음 시구에서 띄어 읽어야 할 곳에 ∨표를 하고, 밑줄 친 부분을 풀이하여 보자.
>
> 春 去 花 猶 在
>
> (1) 띄어 읽기: 春 去 花 猶 在
>
> (2) 풀이 : 봄은 지났지만,

오언시의 기본적인 읽기 방식을 묻고 있는 평가문항이다. 오언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2자/3자로 띄어 읽는다. 시구에서 띄어 읽어야 할 곳에 ∨를 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B-1교과서에 나온 '글을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알맞게 띄어 읽을 수 있다'와 관련된 평가문항을 살펴보자.[24]

23) 김용재 외 3인,『한문1』, 더텍스트, 2010. 79쪽.
24) 박성규 외 3인(2013), 앞의 책, 121쪽.

dCollection @ chosun

<보기>와 같이 단어의 결합 관계에 유의하여 띄어 읽어야 할 부분에 V,∨표시를 해 보자.

<보기>
月白∨雪白V天地∨白
山深∨水深V客愁∨深

・遠上寒山石徑斜
・白雲深處有人家

칠언시의 일반적인 띄어 읽기에는 V를 표시하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결합 관계에는 ∨를 하여 띄어 읽기를 하는 평가문항이다. 한시의 운율을 살리면서 낭독하게 하기 위함이다. 7언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4자/3자로 띄어 읽고 있는데, 위의 한시는 주어+서술어의 기본 어휘를 끊어 읽게 제시하고 있다. 이런 평가문항은 학습자의 독해능력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다.

(3) 토의 구실에 유의하여 글을 끊어 읽을 수 있다.

'토의 구실에 유의하여 글을 끊어 읽을 수 있다'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의 '한문 단문・산문을 끊어 읽을 수 있다'와 유사한 학습내용 성취 기준이다.

아래는 '토의 구실에 유의하여 글을 끊어 읽을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하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표18> 2007개정『한문1』에서 끊어 읽기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	
B	7. 꽃과 새 14. 소나무 아래에서 17. 돌을 뚫는 마음 가짐
C	五. 春風暖 九 . 仁義 十四. 客愁 十七. 訓民正音

A교과서는 '토의 구실에 유의하여 글을 끊어 읽을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없다. B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3개의 단원이 있으며, 평가문항에도 학습목표와 관련된 문항이 모두 제시되어있다. C교과서는 모두 4 개의 단

dCollection @ chosun

원이 있으나, 평가문항에는 학습목표와 관련된 문항이 나와 있지 않다.

<표19> 2009개정『한문1』에서 끊어 읽기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B-1	4. 푸른 산
C-1	**13. 꽃이 피고 지고** 14. 앞마당의 암탉 **15. 해는 어디에서 뜰까?** 16. 하늘과 땅 17. 봄, 여름, 가을, 겨울, 18. 세월이 흘러도 19. 이 한 마디를 얻었소 20. 효도, 백행의 근본 22. 실행에 옮기자 **23. 구름이 깊어 만나지 못했네** 24. 쓸쓸한 옛 절터에서 **25. 거문고 소리는 어디에서 나는가?** 26. 그림 속에 내가 서 있네 27. 허풍 대결 28. 올빼미가 동쪽으로 간 까닭 29.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본담녀 30. 도대체 책 속에 무엇이 있기에 31. 내 손이 에는 듯 32. 공자 34. 송준길 35. 정약용 36. 안창호

A-1교과서의 '토의 구실에 유의하여 글을 끊어 읽을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없다. B-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C-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22개의 단원이지만,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원은 4개의 단원뿐이다.

먼저, B교과서에서 '토의 구실에 유의하여 글을 끊어 읽을 수 있다'와 관련된 평가문항을 살펴보자.[25]

아래 문장의 (　　)의 안에 적당한 토를 넣어 읽어 보자.

산꽃은 붉고, 꾀꼬리는 운다.
→ 山花(　) 紅(　)黃鳥(　)鳴(　)

문장의 풀이를 제시한 후, 현토하는 것이 해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해준다. 문장의 풀이에 알맞게 토를 넣어 읽도록 하였다.

아래는 B-1교과서의 평가문항이다.[26]

25) 박성규 외 3인(2010), 앞의 책, 40쪽.
26) 박성규 외 3인(2013), 앞의 책, 33쪽.

dCollection @ chosun

다음 (　　)안에 알맞은 토를 써 보자. ・四季(　　) 春夏秋冬(　　) ・四方(　　) 東西南北(　　)

B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알맞은 토를 넣어 보는 유형이지만, 문장의 풀이가 나와 있지 않다. 이 경우 학습자는 우선 문장을 한글로 풀이 할 수 있어야 토를 붙일 수 있다. B의 평가유형보다 B-1의 유형의 난이도가 높다고 하겠다.

'토의 구실에 유의하여 글을 끊어 읽을 수 있다'에 대한 평가문항은 대부분 토가 들어갈 자리에 빈칸을 두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토를 넣어 완성하는 문항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토'가 한문을 한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임을 인식하게 해준다. 따라서 '토'를 붙여서 한문을 독해하고 읽는 것은 동아시아 중 한국의 독특한 문장이해법이라는 것도 알게 해준다.

2. '이해'에 대한 평가

독해 영역의 '이해'는 단문, 산문, 한시의 풀이하기, 이해하기, 감상하기에 중점을 둔다.[27]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에 대한 내용과 학습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20>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영역 내용과 학습내용

내용	학습내용
이　해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 구절,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글을 읽고 지은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한시의 형식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한시를 읽고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글에 나타난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는 이해 영역을 여섯 단계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나 구절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 의미를 모를 때

27) 교육과학기술부(2011), 앞의 책, 18쪽.

dCollection @ chosun

에는 글의 문맥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하기를 제시한다. 글을 읽을 때에는 문장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이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적인 의미, 곧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글 속에 주제가 표면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중심 내용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주제가 표면에 잘 드러나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다. 글의 내용을 보고 글의 이미를 이해하고, 숨겨져 있는 지은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한시에는 시체(詩體), 압운(押韻), 대우(對偶) 등의 형식이 있다. 한시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한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시의 시상 전개는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시상 전개 과정을 파악하면 시 전체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시의 주제를 바르게 파악 할 수 있다. 글에 나타난 서술 방식과 표현 방식을 이해하여 작품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감상 할 수 있어야한다. 이 여섯 가지의 학습내용에 따른 교과서의 평가문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 구절,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독해 영역에서 새롭게 제시된 학습내용 성취 기준이다.

아래는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 구절,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표21> 2009개정『한문1』에서 의미파악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B-1	10.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다 **11.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다**
C-1	

A-1교과서와 C-1교과서에는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 구절,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없었다. B-1교과서에서 학습목표와 관련된 단원은 2개의 단원인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1개의 단원에서만 제시되어

dCollection @ chosun

있다.

다음은 B-1교과서에서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 구절,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항을 살펴보자.[28]

[1~3]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居安思危, 思則有備, (　　).
(나) 知㉠彼知㉡己, 百戰百勝
(다) 江海大魚, 薄集龍門下數千, 不得上, 上則爲龍.

1. (가) 문장의 (　　)안에 들어갈 성어를 한자로 써 보자.
2. (나) 의 문장의 ㉠과 ㉡의 뜻을 차례대로 써 보자.
3. (다) 문장에서 유래된 성어와 속뜻을 써 보자.

단어나 구절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글의 문맥을 고려하여 의미를 알맞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는 '知彼知己'에서 '彼'와 '己'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다)의 경우는 '登龍門'이라는 성어의 배경이 되고 있는 단문이다. (다)의 문장을 독해할 수 있다면 '登龍門'이라는 단어도 찾아 낼 수 있다. 이렇게 문장 독해를 통하여 문맥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어를 활동하게 하고 있다.

(2)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한문 단문·산문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의 내용의 일부가 새로운 학습성취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다. 또,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단문, 산문, 한시의 한문학의 기본장르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학습내용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어있다.

아래는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하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28) 박성규 외 3인(2013), 앞의 책, 87쪽.

dCollection @ chosun

<표22> 2007개정『한문1』에서 중심 내용 파악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	
B	17. 돌을 뚫는 마음 가짐 18. 공자와 논어 **19. 책을 빌려 주다**
C	十七. 訓民正音

A교과서의 '한문 산문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없다. B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3개의 단원인데, 그 중 평가문항이 제시된 것은 1개의 단원 뿐 이다. C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이지만,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없다.

<표23> 2009개정『한문1』에서 중심 내용 파악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28. 送人 송인**
B-1	6. 내 코가 석 자 7. 풀을 묶어 은혜를 갚다 **8.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 9.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다** 10.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다 11.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다 **17. 마음이 있지 않으면 18.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19. 나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 20. 남에게 너그러운 사람
C-1	21. 배움에 욕심을 내자 23. 구름이 깊어 만나지 못했네 24. 쓸쓸한 옛 절터 25. 거문고 소리는 어디에서 나는가? **26. 그림 속에 내가 서 있네 31. 도대체 책 속에 무엇이 있기에 33. 내 손이 에는 듯** 34. 송준길 **35. 정약용** 36. 안창호

A-1교과서의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제시되어있다. B-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0개의 단원인데, 그 중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이 제시된 단원은 4개의 단원뿐이다. C-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0개의 단원인데, 그 중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이 제시된 단원은 4개의 단원뿐이다.

먼저, B교과서에서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평가문항을 살펴보자.[29)]

dCollection @ chosun

아래 항목에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 ∨표시를 해 보자. □ 동춘당 선생이 남에게서 책을 빌렸다. □ 동춘당 선생은 빌려 준 책에 보풀이 일지 않으면 꾸짖었다. □ 동춘당 선생은 열심히 읽지 않은 사람에게는 책을 되돌려 받았다. □ 동춘당 선생에게 책을 빌려 간 사람은 책을 읽지 않을 수 없었다.

위의 문항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학습자는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풀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글의 중심내용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중심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는 B-1교과서에서의 평가문항이다.[30]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써 보자. ・身病, 可醫 □病, 難醫 ・□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위의 문항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를 쓰는 것은 두 문장의 중심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두 문장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는 두 문장에서 말하는 중심내용을 말한다.

(3) 글을 읽고 지은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글을 읽고 지은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2007개정 교육과정 '한문 산문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의 영역별 내용의 일부가 학습 성취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다.

아래는 '글을 읽고 지은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하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29) 박성규 외 3인(2010), 앞의 책, 106쪽.
30) 박성규 외 3인(2013), 앞의 책, 135쪽.

dCollection @ chosun

<표24> 2009개정『한문1』에서 지은이의 의도파악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B-1	12. 푸른 물감은 쪽보다 푸르다 13. 배에 새겨 칼을 찾다 14. 소나무 아래에서 15. 고향 생각 16. 산길에서 21. 공주와 온달 **22. 가장 좋은 꽃** 23. 여우와 호랑이 25. 사랑하는 그대여 26. 그리운 벗에게 29. 훈민정음
C-1	27. 허풍대결 28. 올빼미가 동쪽으로 간 까닭

A-1교과서에서는 '글을 읽고 지은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와 관련된 학습목표는 나와 있지 않다. B-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11개의 단원이지만,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1개의 단원에만 나와 있다. C-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2개의 단원이지만,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다음은 B-1교과서에서 '글을 읽고 지은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와 관련된 평가문항을 살펴보자.[31]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질문에 답해 보자.

왕은 왜 '何花最好?'라고 물었을 까요?	정순 왕후가 면화가 가장 좋다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정순 왕후의 대답이 다른 처녀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고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본문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지은이의 의도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통하여 학습자는 본문내용에서 지은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지은이가 정순왕후의 현명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가 곳곳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글의 내용을 자지 것으로 수용하게 된다.

(4) 한시의 형식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31) 박성규 외 3인(2013), 앞의 책, 169쪽.

dCollection @ chosun

‘한시의 형식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3학년의 영역별 내용에 나와 있는 학습내용 성취기준이다. 이러한 학습내용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1학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아래는 ‘한시의 형식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하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표25> 2009개정『한문1』에서 한시의 형식적인 특징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26. 金剛山 금강산 **27. 絶句 절구**
B-1	**14. 소나무 아래에서 15. 고향 생각** 16. 산길에서 **24. 인생의 길에서**
C-1	24. 쓸쓸한 옛 절터에서 **25. 거문고 소리는 어디에서 나는가? 26. 그림 속에 내가 서 있네**

A-1교과서에서는 ‘한시의 형식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와 관련된 학습목표는 2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1개 단원에만 나와 있다. B-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4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3개의 단원에 제시되어있다. C-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3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2개의 단원에만 나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하여 학습목표와 평가문항은 항상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목표가 대체로 평가문항의 형식을 거쳐서 성취정도를 측정하여야 다음 학습과정에 피드백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문항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은 교과서 집필자들이 유의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A-1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시의 형식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와 관련된 평가문항을 살펴보자.[32]

32) 송재소 외 4인,『중학교 한문』, 다락원, 2013. 185쪽.

dCollection @ chosun

[1~4]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江碧鳥逾㉠, 山㉡花欲燃, 今春看又過, ㉢何日是歸年?

1. 밑줄 친 鳥와 대우를 이루는 시어를 찾아 1음절 한자로 써 보자.
2. ㉢을 바르게 읽고 풀이해 보자.
3. 운자(韻字)를 찾아 써 보자.
4. ㉠과 ㉡에 알맞은 한자를 다음 항아리에서 꺼내어 써 보자.

→㉠□ ㉡□

1번은 한시의 특징인 대우를 학습자가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밑줄 친 '鳥'와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는 한자를 찾아서 쓸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3번 문제는 학습자가 한시의 특징인 압운을 이해하여 운자(韻字)가 무엇인지를 알고 찾아서 쓸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통하여 한시의 형식 중 '대우', '운자'는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 외의 형식은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위에 제시된 한시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오언시', '기승전결 전개', '띄어 읽기' 등도 포함되어야 할 한시의 형식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B-1교과서의 '한시의 형식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와 관련된 평가문항을 살펴보자.[33]

다음 한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訪道者不遇
松下問童子 言師採藥去 只在此山中 雲深不知處

위의 시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에 ∨표시를 해 보자.

□ 4언시이다.
□ 4구로 이루어져 있다.
□ 제목을 통해 도사를 만난 것을 알 수 있다.

한시의 기초적인 시체 중에서 구(句)와 언(言)의 기초적인 지식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위의 문항은 '절구'라는 양식, '운자' 등의 한시 형식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33) 박성규 외 3인(2013), 앞의 책, 111쪽.

dCollection @ chosun

다음은 C-1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시의 형식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와 관련된 평가문항을 살펴보자.[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秋陰漠漠四山空 ㉯落葉無聲滿地紅 ㉰立馬溪橋問歸路 ㉱不知身在畫圖中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 보자. ① 시의 형식은 칠언 절구 이다. ② 운자는 '空', '紅', '中'이다. ③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④ 1구에서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다. ⑤ ㉮, ㉯에서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학습자가 한시의 내용과 형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한시의 형식 중에서 시체(詩體)와 운자(韻字)를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문항은 비교적 다양하게 한시를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한시를 읽고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아래는 '한시를 읽고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하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표26> 2007개정『한문1』에서 한시의 시상 전개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	
B	16. 비 내리는 가을 밤
C	十六. 桃園結義

A교과서에서는 '한시를 읽고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와 관련된 학습목표는 나와 있지 않다. B교과서에서 학습목표와 관련된 단원 1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 또한 갖추어져 있다. C교과서에서 학습목표와 관련된 단원은 1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제시되어있다.

34) 김용재 외 3인,『중학교 한문』, 와이비엠, 2013. 175쪽.

dCollection @ chosun

<표27> 2009개정『한문1』에서 한시의 시상 전개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28. 送人 송인
B-1	24. 인생의 길에서 25. 사랑하는 그대여 26. 그리운 벗에게
C-1	23. 구름이 깊어 만나지 못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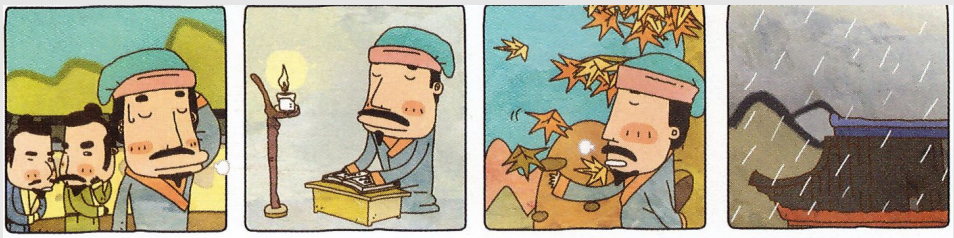
A-1교과서에서는 '한시를 읽고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와 관련된 학습목표는 1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B-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3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C-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 문항도 제시되어있다.

먼저, B교과서와[35] B-1교과서에[36] 나와 있는 '한시를 읽고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와 관련된 평가문항을 살펴보자.

35) 박성규 외 3인(2010), 앞의 책, 88쪽.
36) 박성규 외 3인(2013), 앞의 책, 19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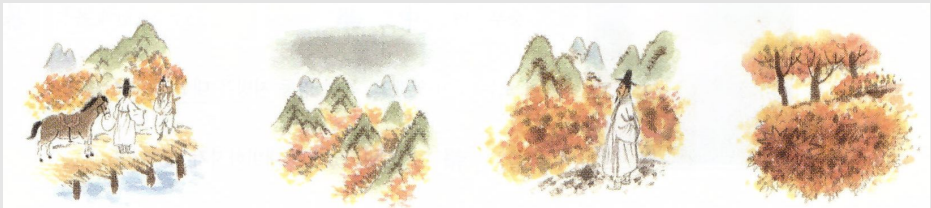
dCollection @ chosun

본문의 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시상 전개에 맞게 번호를 붙여 보자.



(　　)　　(　　)　　(　　)　　(　　)

'訪金居士野居' 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시상 전개에 맞게 연결해 보자.



起句(기구)	承句(승구)	轉句(전구)	結句(결구)
시상을 불러일으킴.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 · 발전시킴.	시상에 변화를 주어 분위기를 전환시킴.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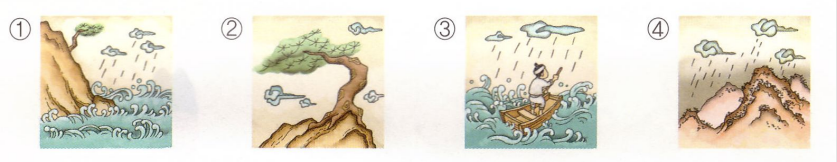
B교과서와 B-1교과서에서는 시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후 그림이 표현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기승전결(起承轉結)의 시상 전개에 맞게 연결시키는 문항이다. 학습자는 한시를 읽고 기승전결(起承轉結)의 시상 전개 과정을 파악하여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두 교과서의 평가문항에서 변화양상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 시상의 전개는 이미지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좋은 학습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은 C교과서에 한시 시상관련 평가문항이다.[37]

37) 김용재 외 3인(2010), 앞의 책, 83쪽.

dCollection @ chosun

시상이 전개에 어울리도록 다음 그림을 순서대로 배열해 보자.



한시에 나온 시구를 그림으로 나타내어서 학습자가 그림을 보고 한시의 시상 전개에 맞도록 그림을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아래는 C-1교과서에 한시 시상관련 평가문항이다.[38]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雲深不知處	㉯ 言師採藥去
㉰ 松下問童子	㉱ 只在此山中

위 시구를 起承轉結의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나열해 보자.

한시의 구를 순서를 바꾸어 ㉮~㉱로 나열해 놓았다. 학습자가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이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알아서 한시의 구를 시상 전개에 맞게 차례대로 나열해 보도록 하는 평가문항이다.

(6) 글에 나타난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글에 나타난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 3학년 '이해'영역의 '한문 산문의 특수한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의 내용이과 동일하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의 학습내용 성취 기준에 보이고 있다.

아래는 '글에 나타난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하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38) 김용재 외 3인(2013), 앞의 책, 160쪽.

dCollection @ chosun

<표28> 2009개정『한문1』에서 표현 효과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B-1	19. 나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 **21. 공주와 온달 23. 여우와 호랑이 25. 사랑하는 그대여** 26. 그리운 벗에게
C-1	27. 허풍 대결 32. 공자

A-1교과서에는 '글에 나타난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없다. B-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5개의 단원이지만,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3개의 단원에만 제시되어있다. C-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2개의 단원이지만,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B-1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에 나타난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와 관련된 평가문항을 살펴보자.[39]

본문은 대화체의 서사적 서술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 내용을 왕과 공주의 대화로 정리해 보자.

	풀이	본문 문장
王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다.	
公主		今何故, 改前言乎?
王		固不得爲吾女也.

학습자는 글을 읽을 때에는 글에 나타난 특징적인 서술 방식이나 표현효과를 이해하고 있어야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위의 평가문항이 나온 단원의 본문에서는 왕과 공주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학습자가 왕과 공주의 대화를 서사적인 서술 방식대로 정리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39) 박성규 외 3인(2013), 앞의 책, 163쪽.

dCollection @ chosun

Ⅳ. ‘문화’영역 평가에 관한 분석

1. ‘한자 문화’에 대한 평가

문화 영역의 ‘한자 문화’는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중점을 둔다.[40]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한자 문화’에 대한 내용과 학습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29>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한자 문화 영역 내용과 학습내용

내용	학습내용
한자 문화	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한자 문화’ 학습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우리의 선인들은 생활 속의 정서, 지혜, 사상 등을 한문으로 기록해 놓았다. 한문 기록 속에 담긴 생활의 지혜와 사상을 통해 학습자가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한다. 다음은, 한문은 고전어(古典語)이며 또한 문어문(文言文)으로서 한자문화권의 특수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한자문화권의 역사적·지리적·문화적 배경 아래 형성된 기초적 지식 가운데, 세시풍속(歲時風俗), 절기(節氣), 간지(干支)등 중학교 수준의 한문 학습에 필요한 문화 상식을 익힌다.[41] 이 두 가지 학습내용에 따른 평가문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40)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18쪽.
41)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10쪽 참조.

dCollection @ chosun

(1) 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한자문화에 관련된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두 가지였다.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와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이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합쳐져 하나의 학습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아래는 이러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표30> 2007개정『한문1』의 한문문화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	12. 上方下圓 13. 大韓獨立 14. 高句麗人
B	12. 최선을 다한 후에 17. 돌을 뚫는 마음가짐 18. 공자와 논어 19. 책을 빌려 주다 20. 새해 첫날
C	九. 仁義 十二. 溫故知新 十三. 百行之源 十七. 訓民正音

A교과서의 '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와 관련된 학습목표를 제시한 단원인데, 관련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B교과서에서는 관련된 학습목표는 모두 5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 있는 평가문항은 4개의 단원이다. C교과서에서 관련된 학습목표가 제시된 것은 4개의 단원이지지만, 관련 평가문항은 없다.

dCollection @ chosun

<표31> 2009개정『한문1』의 한문문화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12. 格言 격언 13. 名言・名句 명언・명구 14. 棉花最好 면화최호 15. 不欲食言 불언식언 16. 不言長短 불언장단 17. 兄弟投金 형제투금 18. 元日・秋夕 원일・추석 19. 獨島 독도 20. 宮城 궁성 21. 訓民正音 훈민정음 22. 李舜臣 이순신 23. 萬德 만덕 24. 金時習 김시습 25. 率居 솔거 30. 論語 논어 31. 孟子 맹자 34. 許生傳 허생전
B-1	17. 마음이 있지 않으면 20. 남에게 너그러운 사람
C-1	19. 이 한마디를 얻었소 20. 효도, 백행의 근본 22. 실행에 옮기자 29.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본다면 32. 공자 33. 맹자

A-1교과서의 '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17개의 단원이다.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13개의 단원에 나와 있다. B-1교과서에서 학습목표가 제시된 것은 2개의 단원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1개의 단원이다. C-1교과서에서 6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 있는 평가 문항은 모두 3개의 단원이다.

먼저, A교과서에서 문화와 관련된 평가문항이다.[42]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余爲大韓獨立而死, 爲東洋平和而死, 死何憾焉?
(1) 다음은 김구 선생이 쓴 "백범일지(白凡逸志)"의 일부이다. □안에 들어갈 단어를 위 문장에서 찾아 써 보자.

"네 소원이 무엇이냐?"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다음 소원은 무엇이냐?"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오."할 것이요, 또 "그다음 소원이 무엇이냐?"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

위의 것은 안중근 의사가 경술년 3月 26日 사형이 집행되는 현장에서 말한 문장이

42) 송재소 외 4인,『한문1』, 다락원, 2010. 103쪽.

dCollection @ chosun

다. 김구 선생이 쓴 “백범일지(白凡逸志)”의 내용 중도 안중근의 문장 중 같은 말이 빈칸에 들어간 답 그것을 넣게 구성한 문항이다. 안중근 의사와 김구의 문장 속에 같은 말을 읽고 학습자가 선인의 삶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문항이다.

아래는 A-1교과서에 나온 문화와 관련된 평가문항이다.[43]

다음 문장을 풀이해 보고, 경복궁 네 문의 명칭을 써 보자. 立門四, 南曰光化, 舊名, 正門. 北曰神武, 東曰建春, 西曰迎秋. □□門 □□門 景福宮 □□門 □□門

이 문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경복궁 주위에 있는 성문의 명칭을 알게 하는 문항이다. 앞의 문항에 비해 매우 단순하게 되어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갖게 하기는 어렵다. 같은 저자의 문화관련 문항이지만 앞의 문항이 훨씬 흥미롭게 구성되었다고 하겠다.

다음은, B교과서에서 나온 문화와 관련된 평가문항이다.[44]

‘一日三省’은 원래 증자가 한 말이다. 증자가 한 세 가지 반성 내용을 살펴보고 나는 무엇을 반성할 것인지를 써 보자.

증자의 一日三省	나의 一日三省
· 다른 사람을 돕는데 마음을 다하였는가? · 친구와 사귀는 데 신의를 잃지는 않았는가? · 배운 것을 제대로 복습하였는가?	

증자는 하루에 세 가지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였다는 고사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이러한 선인의 바람직한 태도를 받아들여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내용을 쓰도록 하였다. 시대와 환경이 다른 상황이기는 하지만 자신을 보다 나은 인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43) 송재소 외 4인(2013), 앞의 책, 135쪽.
44) 박성규 외 3인(2010), 앞의 책, 66쪽.

dCollection @ chosun

아래는 B-1교과서에 나온 문화와 관련된 평가문항이다.[45]

아래 밑줄 친 단어를 그 유래를 생각하면서 풀이해 보자.

교육 기본법

교육은 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共榮의 이상을 實現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위의 평가문항이 나온 단원에는 '단군 신화'가 기록된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원문을 본문으로 제시되어있다. 이를 통해 민족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는 본문에서 배운 홍익인간의 유래를 생각하면서 교육 이념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다음은 C교과서에 나온 문화와 관련된 평가문항이다.[46]

다음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 不相流通.

㉠ ㉡

1. 밑줄 친 ㉠을 풀이해 보자.
2. 의 '文字'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지 써 보자.
3. 위 문장에서 알 수 있는 訓民正音의 창제 동기를 말해 보자.

위의 문항은 한글창제의 배경과 이유를 알게 해주고 있다. 中國과는 다른 언어체계를 중국의 한자로 표기하는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부각하고, 우리 민족에게 '文字'가 없기 때문에 중국 漢字를 사용하였지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한 것이 한글이라는 설명이다. 이 문항은 한글창제의 가장 핵심적 부분을 잘 짚고 있다. 학생들은 본문에서 익힌 지문을 평가문항에서 다시 한 번 익히면서 훈민정음 창제 관련 사항을 이해시키고 있다.

아래는 C-1교과서에 나온 문화와 관련된 평가문항을 살펴보자.

45) 박성규 외 3인(2013), 앞의 책, 229쪽.
46) 김용재 외 3인(2010), 앞의 책, 87쪽.

dCollection @ chosun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47] 양혜왕: 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 맹자: 王, 何必曰利, 亦有利仁義而已矣. 2. ㉠과 뜻이 반대되는 한자를 골라 보자. 3. ㉡의 풀이로 알맞은 것을 골라 보자. 4. 맹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한자로 써 보자.(2글자)

성현의 말이 담긴 문장을 통하여 학습자가 선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실제 문제로 답을 요구하는 사항은 '반대한자' 및 '한자 풀이'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가치관 및 인성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과는 거리가 먼 문제라 말할 수 있다.

(2)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 한자문화권에 대한 공부와, 한자문화권 상호 교류에 관련된 목표는 2007년 개정에는 두 분야로 나뉘어져있었는데,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두 가지의 내용이 합쳐져서 하나의 학습내용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아래는 '한자문화권과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증진을 학습목표로 하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표32> 2007개정『한문1』에서 한자문화권 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	9. 秋夕 10. 除夕 11. 韓半島
B	10. 열 명이 못 지킨 한 도둑 20. 새해 첫날
C	十八. 桃園結義

A교과서의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47) 김용재 외 3인(2013), 앞의 책, 219쪽.

dCollection @ chosun

단원은 모두 3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B교과서에서 관련된 학습목표는 2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1개의 단원이다. C교과서에서 학습목표는 1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나와 있지 않다.

<표33> 2009개정『한문1』에서 한자문화권 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6. 절기와 풍속 7. 간지의 이해 11. 俗談 속담
B-1	27. 명절 풍속 28. 팔도 지리 29. 훈민정음
C-1	

A-1교과서의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3개의 단원인데, 평가문항에도 학습목표와 관련된 문항이 모두 제시되어 있다. B-1교과서는 관련된 학습목표는 3개의 단원인데, 관련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C-1교과서의 관련된 학습목표는 나와 있지 않다.

다음은 A교과서의 한자문화권 관련 평가문항이다.[48]

다음 그림과 관련 있는 명절을 바르게 연결해 보고, 그 명절에 행하는 세시 풍속을 조사해 보자.

명절과 관련된 그림을 보고 그 명절에 행해지고 있는 세시 풍속을 바르게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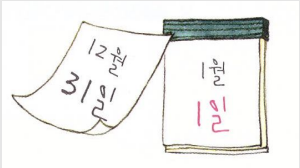
48) 송재소 외 4인(2010), 앞의 책, 79쪽.

dCollection @ chosun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한자어로 표현되었다면 한문과목 평가문항으로 성립하겠지만, 위의 문항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가져다놓아도 자연스러울 정도이다. 반면 같은 저자에 의해 집필된 아래 A-1의 경우는 보기에 한자어가 나와서 세시풍속관련 한자어를 익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49]

다음 그림과 관련 있는 한자 어휘를 보기에서 찾아 써 보자.
<보기>

秋分　冬至　立春大吉　送舊迎新

(1)	(2)
	

절기에 맞는 풍속과 관련된 한자 어휘를 보고 절기와 풍속을 통해 예전부터 전해오는 선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절기와 풍속에 관련된 한자 어휘를 통해 한자 문화권의 문화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B교과서의 한자문화권 관련 평가문항이다.[50]

본문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설날 풍속을 보여 주고 있다.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과 중국의 설날 풍속을 조사하여 빈 칸에 쓰고 서로 비교해 보자.
한국 설날 풍속 : 차례 지내기, 세배하기, _____
중국 설날 풍속 : 연화(年畫)붙이기, 만두 먹기, _____
일본 설날 풍속 : 가도마쓰(문 앞에 장식한 소나무) 세우기, _____

학습자가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설날 풍속을 알아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한국·중국·일본은 같은 한자 문화권이지만 그 나라의 역사적·지리적·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각 나라만의 풍속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 학습자는 세 나라의 설날 풍속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한자

49) 송재소 외 4인(2013), 앞의 책, 37쪽.
50) 박성규 외 3인(2010), 앞의 책, 110쪽.

dCollection @ chosun

문화권을 상호 이해하는데 한자 학습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B-1교과서의 한자문화권 관련 평가문항이다.[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逢親舊年少, 以登科・進官・生男・獲財等語, 爲德談, 以相賀.
(나) 是日, 謂之(　　), 言中秋玩月之夕也. 或云, "新谷將收, 如日之夕矣."

1. (가) 문장에 해당하는 명절 이름을 2음절의 한자로 써 보자.
2. (나) 문장의 (　　) 안에 들어갈 명절 이름을 2음절의 한자로 써 보자.
3. 아래 항목 중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표시를 해 보자.
□ 설날에는 과거 급제, 승진, 아들 낳기, 부자 되기 등에 관한 덕담을 주로 했다.
□ 햇곡식을 거두는 것이 마치 하루 중에서 아침과 같기 때문에 추석이라고도 했다.

설날과 추석에 관련된 문장을 보고 명절에 행해지고 있는 세시풍속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1번과 2번 문항은 (가)와 (나) 문장과 관련 있는 명절을 한자로 써보도록 하였다. 위 평가문항을 통하여 설날에 나누었던 덕담이 매우 현실적 내용이었던 것을 이해 할 수 있다. 당시의 세태를 실감 할 수 있는 좋은 평가라고 생각된다.

2.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에 대한 평가

문화 영역의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는 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를 알고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52]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에 대한 내용과 학습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51) 박성규 외 3인(2013), 앞의 책, 213쪽.
52)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18쪽.

dCollection @ chosun

<표34>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영역 내용과 학습내용

내용	학습내용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언어생활에 사용된 한자 어휘를 이해하고 뜻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학습내용은 곧 일상 언어 속에서 사용되는 개념적, 추상적 의미를 이해하고, 심오한 사상이나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한자 어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한자 학습을 통하여 한자 어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서,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내용에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에 관한 교과서의 평가문항을 살펴보도록 하자.[53]

(1) 언어생활에 사용된 한자 어휘를 이해하고 뜻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언어생활에 사용된 한자 어휘를 이해하고 뜻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학습내용 성취 기준이다. 아래는 '언어생활에 사용된 한자 어휘를 이해하고 뜻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하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표35> 2009개정『한문1』에서 언어생활 한자 어휘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4. 가족 이야기 8. 숫자가 들어간 성어 9. 동물이 들어간 성어 10. 우정과 관련 있는 성어 11. 俗談 속담
B-1	13. 배에 새겨 칼을 찾다
C-1	6. 인터넷에서 7. 학교에서 8. 버스와 지하철에서 9. 말과 글에 담긴 의미 10.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 11. 수와 도형의 세계 12. 신비한 자연의 이치

A-1교과서에서 '언어생활에 사용된 한자 어휘를 이해하고 뜻에 맞게 활용할 수

53)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10쪽.

dCollection @ chosun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5개의 단원이며, 그 중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4개의 단원에 제시되어있다. B-1교과서에서 관련된 학습목표는 1개의 단원인데, 관련된 평가문항도 제시되어있다. C-1교과서에서 관련된 학습목표는 7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 문항은 6개의 단원에 제시되어있다.

먼저, A-1교과서에서의 언어생활과 관련된 평가문항이다.[54]

다음 한자 어휘를 활용하여 짧은 문장을 지어 보자. (1) 家族 (2) 男妹

학습자가 한자 어휘의 뜻을 명확히 알아서, 한자 어휘가 들어가는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는 평가문항이다. 이는 한자 어휘를 이해하여 언어생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 문항이다. 하지만 제시된 한자 어휘가 너무나 초보적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실제적으로 목표에서는 개념적이며, 추상적 언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있다. 이 문항은 교육과정의 학습목표를 구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B-1교과서의 언어생활과 관련된 평가문항이다.[55]

아래 풀이를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아 써 보자. 조금 낮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음. 비슷한 말 大同小異(대동소이)

본문에 '五十步百步'가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평가문항이다. 성어의 속뜻을 이해하여 실제 언어생활 속에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다음은, C-1교과서의 언어생활에 관련된 평가문항이다.[56]

54) 송재소 외 4인(2013), 앞의 책, 29쪽.
55) 박성규 외 3인(2013), 앞의 책, 97쪽.
56) 김용재 외 3인(2013), 앞의 책, 81쪽.

dCollection @ chosun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그림과 같이 줄에 무거운 추를 매달아 기둥의 수직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어떤 힘을 이용한 것인지 골라 보자.
①重力 ②合力 ③速力 ④浮力 ⑤運動

위 문항은 자연과학에 관한 어휘와 그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과학 용어를 한자로 익히면 굳이 개념을 외우지 않고도 한자 뜻풀이로 개념을 이해 할 수 있다. 요즘 관심을 끌고 있는 융합적 내용의 평가문항이라고 생각된다.

dCollection @ chosun

Ⅴ. ‘한문 지식’에 관한 평가분석

1. 한자에 대한 평가

한문 지식 영역의 ‘한자’는 한자의 특징, 한자의 짜임 등 한자와 관련된 기초적인 한문 지식의 성취와 그 활용에 중점을 둔다.[57]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한자’에 대한 내용과 학습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36>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한자 영역 내용과 학습요소

내용	학습요소
한 자	한자의 形(형)·音(음)·義(의)를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있다.
	한자의 부수(部數)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
	필순(筆順)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한자를 쓸 수 있다.
	한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
	한자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한자’ 학습내용은 여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한자가 표의문자라는 특성을 이해하고, 한자의 形(형)·音(음)·義(의)를 동시에 익힐 수 있어야 한다. 한자가 하나의 음과 뜻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하나의 한자가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한자를 익힐 때 여러 가지의 음과 뜻을 함께 익혀야 한다. 자전에서 한자를 찾을 때 초보 학습자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부수 색인법’이다. ‘부수 색인법’으로 한자를 찾을 경우에 ‘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자를 바른 모양과 순서로 쓰기위해서는 필순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자 필순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필순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아야한다. 한자의 짜임은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말한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따라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전주(轉注)’, ‘가차(假借)’등 여섯 가지로 나뉜다. 한문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는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을 위주로 학습한다. 한자의 짜임이 어떠한 원리로 만들

57)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18쪽.

dCollection @ chosun

어졌는지 학습한다. 한자의 형성과정을 통하여 한자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한다.

(1) 한자의 形(형)·音(음)·義(의)를 알 수 있다.

아래는 '한자의 形(형)·音(음)·義(의)를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하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표37> 2007개정『한문1』에서 한자학습의 3요소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	1. 漢文과 한자
B	1. 한자란 무엇인가 2. 상형과 지사 3. 회의와 형성 4. 자전과 부수
C	一. 山靑

A교과서에서는 대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한문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루는 기초 단원인 '한문 학습의 시작'의 소단원 '漢文과 漢字'에서 '한자의 形(형)·音(음)·義(의)를 알 수 있다'와 관련된 학습내용과 평가문항이 나와 있다. B교과서에서 관련된 학습목표는 4개의 단원인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나와 있지 않다. C교과서에서 관련된 학습목표는 1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제시되어있다.

<표38> 2009개정『한문1』에서 한자학습의 3요소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1.한자와 한문
B-1	1.한자의 특징과 짜임
C-1	1.선과 점이 모여

A-1교과서에서 '한문 학습의 시작'의 소단원 '漢文과 漢字'에서 '한자의 形(형)·音(음)·義(의)를 알 수 있다'와 관련된 학습목표는 1개의 단원이며, 관련된 평가문

dCollection @ chosun

항도 제시되어있다. B-1교과서에서 관련된 학습목표는 1개의 단원인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나와 있지 않다. C-1교과서에서 관련된 학습목표는 1개의 단원이며, 관련된 평가문항도 제시되어있다.

다음은, C교과서와 '한자의 形(형)·音(음)·義(의)를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한 단원의 평가문항이다.[58]

다음 빈칸에 알맞은 한자의 요소들을 써 넣어, 한자의 형·음·의 표를 완성해 보자.

모양[형(形)]	소리[음(音)]	뜻[의(義)]
水	(1) (　　)	물
靑	청	(2) (　　)
(3) (　　)	청	맑다

C-1교과서에서 '한자의 形(형)·音(음)·義(의)를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한 단원의 평가문항이다.[59]

다음 빈칸에 알맞은 한자의 모양이나 소리, 뜻을 써넣어 보자.

모양	小	(2)	手
소리	(1)	인	수
뜻	작다	사람	(3)

C교과서와 C-1교과서에 나온 '한자의 形(형)·音(음)·義(의)를 알 수 있다'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A교과서와 A-1교과서에 나온 평가문항 유형과 동일하다. 이는 한자평가 문항의 가장 기본적 형태로 학습자의 단순지식을 평가하는 형식이다. 좀 더 흥미로운 문제를 만들 필요성이 요구된다.

(2)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있다.

아래는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하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58) 김용재 외 3인(2010), 앞의 책, 11쪽.
59) 김용재 외 3인(2013), 앞의 책, 16쪽.

dCollection @ chosun

<표39> 2007개정『한문1』에서 한자의 음과 뜻 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	
B	8. 다정다감
C	十一. 一年之計

A교과서에서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없다. B교과서에서 관련된 학습목표는 1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이 제시되어있다. C교과서에서 관련된 학습목표는 1개의 단원 이며, 평가문항에도 학습목표와 관련된 문항이 제시되어있다.

<표40> 2009개정『한문1』에서 한자의 음과 뜻 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12. 格言 격언 13. 名言・名句 명언・명구 14. 棉花最好 16.不欲食言 불욕식언 18. 元日, 秋夕 원일, 추석 19. 獨島 독도 20. 宮城 궁성 24. 金時習 김시습 25. 率居 솔거 30. 論語 논어 32. 始祖 東明聖王 시조 동명성왕
B-1	5. 난형난제
C-1	6.인터넷에서 7. 학교에서 8. 버스와 지하철에서 9. 말과 글에 담긴 의미 10.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 11. 수와 도형의 세계 17. 봄, 여름, 가을, 겨울 28. 올빼미가 동쪽으로 간 까닭

A-1교과서의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11개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을 제시한 단원은 6개의 단원에만 나와 있다. B-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5단원이며, 관련 평가문항은 없다. C-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8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7개의 단원에 제시되어있다.

A-1교과서는 A교과서와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하는 단원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C-1교과서 또한 C교과서에 비해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Collection @ chosun

하는 단원이 많아졌다. B교과서를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들에서 한자의 음과 뜻을 학습하는 단원이 풍부해졌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C교과서에서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를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한 단원의 평가문항이다.[60]

다음 밑줄 친 한자에 해당하는 뜻을 찾아 연결해 보자.		
(1) 학교 行事에 모든 학급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	· 항렬
(2) 공사 관계로 步行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 행하다
(3) 나이는 내가 더 많지만 行列로는 그가 내 삼촌뻘이다.	·	· 다니다

'行'은 '다니다', '행하다', '항렬' 등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이다. 문장에서 '行'이 들어간 단어를 보고, '行'의 뜻을 찾아 연결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다음은 C-1교과서의 경우이다.[61]

다음 글에서 밑줄 친 한자의 음과 뜻을 각각 써 보자.
(1) 남북 간의 交易이 확대되고 있다.
(2) 학습 내용을 難易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易'은 '바꿀 역', '쉬울 이' 등 음과 뜻이 여러 가지이다. 문장에 쓰인 '易'가 활용된 단어를 보고 음과 뜻을 구별하여 쓸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음이 뜻에 따라 변하는 것을 단순 암기하는 것을 지양하고, 문장 안에 활용된 어휘를 통하여 학습하게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3) 한자의 부수(部數)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

아래는 '한자의 부수(部數)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하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60) 김용재 외 3인(2010), 앞의 책, 59쪽.
61) 김용재 외 3인(2013), 앞의 책, 71쪽.

dCollection @ chosun

<표41> 2007개정『한문1』에서 부수와 자전학습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	3. 部首와 字典
B	4. 푸른 산
C	二. 月明 五. 春風暖

A교과서에서는 대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한문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루는 기초 단원인 '한문 학습의 시작'의 소단원 '3.部首와 字典'에서 '한자의 부수(部數)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와 관련된 학습내용이 나와 있으며, 학습 목표와 관련된 평가 문항도 나와 있다. B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4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이 나와 있다. C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2개의 단원이지만, 관련된 평가문항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표42> 2009개정『한문1』에서 부수와 자전학습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3. 부수와 자전
B-1	2. 자전 찾기와 한자 쓰기
C-1	4. 뜻과 뜻이 만나면 5. 뜻과 음이 만나면

A-1교과서에서는 '한자의 부수(部數)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제시되어있다. B-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제시되어있다. C-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2개의 단원이지만,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이처럼 부수와 자전은 한문학습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학습비중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구색 맞추기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는 C교과서의 '한자의 부수(部數)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한 단원의 평가문항이다.[62]

62) 송재소 외 4인(2010), 앞의 책, 21쪽.

dCollection @ chosun

다음 한자를 '부수색인 이용법'으로 자전에서 찾아보자.

한자	뜻과 소리	부수	총획
本			
住			
江			

자전의 한자 찾는 방법 중 '부수 색인 이용법'으로 한자를 찾아보도록 평가하는 문항이다. 부수 색인 이용법을 찾아 한자를 찾고 난 후, 한자의 뜻과 소리, 부수, 총획을 찾아 빈칸에 써놓도록 하였다. 하지만 너무나 단순지식을 평가하는 문항 형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다음은 C-1교과서 '한자의 부수(部數)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한 단원의 평가문항이다.[63]

다음은 자전 찾기 대회에서 우승한 학생의 소감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보자.

> 아직도 제가 우승한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결승 문제인 問의 음을 ( )이(가) 아닌 '간'으로 착각하여 자음 색인에서 찾을 때 시간을 좀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問의 부수 ( )와(과) 부수를 제외한 나머지 획수가 ( )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수색인 이용법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음 색인 이용법'으로 한자를 찾지 못할 경우 다른 방법을 이용해 한자를 찾을 수 있음을 말해주면서, '부수 색인 이용법'으로 한자를 찾는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위 평가문항은 문장을 읽으면서 비슷한 한자인 '問'과 '間'의 음의 차이 그리고 나아가서 '問'의 부수 획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매우 바람직한 평가방식이다.

(4) 필순(筆順)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한자를 쓸 수 있다.

'필순(筆順)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한자를 쓸 수 있다'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 '한자를 바르게 읽고 쓸 수 있다'로 제시되었던 부분이다.

아래는 '필순(筆順)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한자를 쓸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하

63) 송재소 외 4인(2013), 앞의 책, 23쪽.

dCollection @ chosun

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표43> 2007개정『한문1』에서 필순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	1. 漢文과 漢字
B	한자란 무엇인가
C	三. 花開

A교과서에서는 대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한문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루는 기초 단원인 '한문 학습의 시작'의 소단원 '1. 漢文과 漢字'에서 '필순(筆順)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한자를 쓸 수 있다'와 관련된 학습 내용만 나와 있을 뿐, 평가 문항은 나와 있지 않다. B교과서의 '필순(筆順)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한자를 쓸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나와 있지 않다. C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3개의 단원이며, 평가문항에도 학습목표와 관련된 문항이 나와 있다.

<표44> 2009개정『한문1』에서 필순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1. 한자와 한문
B-1	1. 자전 찾기와 한자 쓰기
C-1	3. 이것저것 가리키는 한자

A-1교과서에서 '필순(筆順)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한자를 쓸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인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B-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인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평가문항에도 학습목표와 관련된 문항이 나와 있다. C-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인데, 학습목표와 관련된 필순학습의 확인은 평가문항 형식보다 '워크북'형태로 되어있다. 따라서 학습목표가 있다하여도 평가문항이 없는 경우가 많다.

dCollection @ chosun

(5) 한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

‘한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상형・지사자의 짜임을 안다’와 ‘회의・형성자의 짜임을 안다’의 내용이 합쳐져 하나의 학습내용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아래는 ‘한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하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표45> 2007개정『한문1』에서 한자의 짜임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	2. 漢字가 만들어진 원리
B	2. 상형과 지사 3.회의와 형성
C	一. 山靑 二. 明月 三. 花開 四. 水流花開

‘한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가 학습목표로 나와 있는 단원을 각 교과서에서 살펴보자. A교과서에서는 대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한문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루는 기초 단원인 ‘한문 학습의 시작’의 소단원 ‘2. 漢字가 만들어진 원리’에서 ‘한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와 관련된 학습 내용만 나와 있을 뿐, 평가 문항은 나와 있지 않다. B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2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1개의 단원에만 제시되어있다. C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4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A교과서는 한자의 짜임을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에 비하여, C교과서는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dCollection @ chosun

<표46> 2009개정『한문1』에서 한자의 짜임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2.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B-1	1. 한자의 특징과 짜임
C-1	2. 그림으로 나타낸 한자 3. 이것저것 가리키는 한자 4. 뜻과 뜻이 만나면 5. 뜻과 음이 만나면

A-1교과서에서 '한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제시되어있다. B-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이며, 평가문항에도 학습목표와 관련된 문항이 나와 있다. C-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4개의 단원이며, 관련된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들은 모두 한자의 짜임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C-1교과서는 C교과서보다도 훨씬 한자짜임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다음은 B교과서와[64] B-1교과서에[65] 나온 '한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와 관련된 평가문항이다.

아래 □안에 들어갈 한자를 써 보자.
女 (녀)여자 + 子 (자)아들 = □ (호)좋다
□ (전) 밭 + 力 (력) 힘 = 男 (남)사내

아래 □안에 들어갈 한자를 써 보자.
女 여자 + 子 아이 = □ 좋아하다
□ 밭 + 力 힘 = 男 사내

B교과서와 B-1교과서에 나온 한자의 짜임 중 '회의'와 관련된 평가문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女'와 '子'가 합쳐져 새로운 한자인 '好'가 되고, '田'과 '力'이 합쳐져 새로운 한자 '男'이 되는 경우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한자의 짜임 중 '회의'의 원리를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B교과서와 B-1교과서의 평가문항을 보면 빈칸을 둔 한자만 달라졌을 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64) 박성규 외 3인(2010), 앞의 책, 19쪽.
65) 박성규 외 3인(2010), 앞의 책, 19쪽.

dCollection @ chosun

(6) 한자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아래는 '한자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가 학습목표로 제시되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표47> 2007개정『한문1』의 한자의 형성 과정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	1. 漢文과 漢字
B	1. 한자의 특징과 짜임
C	六. 朝雲白

A교과서에서는 대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한문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루는 기초 단원인 '한문 학습의 시작'의 소단원 '1. 漢文과 漢字'에서 '한자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와 관련된 학습 내용만 나와 있을 뿐, 평가 문항은 나와 있지 않다. B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C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한자의 형성과정은 학습내용으로는 다루고 있지만, 평가문항으로 다루기 어려움을 알게 한다.

<표48> 2009개정『한문1』의 한자의 형성 과정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1. 한자와 한문
B-1	2. 한자의 특징과 짜임
C-1	2. 그림으로 나타낸 한자

A-1교과서에서 '한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인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B-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인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C-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이지만, 학습목표와

dCollection @ chosun

관련된 평가문항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도 2007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한자형성은 평가문항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2. '어휘'에 대한 평가

한문 지식 영역의 '어휘'는 단어의 짜임, 단어의 갈래, 성어의 의미 등 어휘와 관련된 기초적인 한문 지식의 성취와 그 활용에 중점을 둔다.[66]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어휘'에 대한 내용과 학습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49>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어휘 영역 내용과 학습내용

내용	학습내용
어 휘	단어의 짜임을 알 수 있다.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알 수 있다.
	성어의 겉뜻과 속뜻을 이해할 수 있다.

'한자' 학습내용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단어의 짜임'은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두 개 이상의 의미 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이룰 때에는 반드시 기능상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단어의 짜임을 문법적 기능에 따라 주술 관계, 술목 관계, 술보 관계, 수식 관계, 병렬 관계 등으로 이해하게 되면, 단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여 어휘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품사(品詞)'는 어휘를 의미와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모아 놓은 단어들의 갈래를 말한다. 품사에는 '실사(實辭)'와 '허사(虛辭)'가 있는데, 한문의 단어는 문장 안에서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알고 문장에서 품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67] 성어는 겉으로 드러난 뜻뿐만 아니라 성어가 만들어진 유래를 알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을 알 수 있어야한다.

66)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18쪽.
67)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13쪽 참조.

dCollection @ chosun

(1) 단어의 짜임을 알 수 있다.

아래는 '단어의 짜임을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하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표50> 2007개정『한문1』에서 단어의 짜임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	一. 身體 二. 日記 三. 交友 四. 家族, 十. 除夕, 十一. 韓半島 十二. 上方下圓
B	5. 해돋이 6. 독서 7. 꽃과 새 8. 다정다감
C	四. 水流花開, 八. 上有天, 十. 君子之言

A교과서에서는 '단어의 짜임을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7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2개의 단원만 제시되어있다. B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4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C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3개의 단원이지만,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모두 제시되어있지 않다.

<표51> 2009개정『한문1』에서 단어의 짜임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4. 가족 이야기 5. 나의 학교생활 6. 절기와 풍속
B-1	3. 해돋이 4. 푸른 산 5. 난형난제
C-1	6. 인터넷에서 7. 학교에서 8. 버스와 지하철에서 9. 말과 글에 담긴 의미 10.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

A-1교과서에서는 '단어의 짜임을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3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B-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3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모두 나와 있다. C-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5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

dCollection @ chosun

련된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먼저, A교과서에서 단어의 짜임관련 평가문항을 살펴보자.[68]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를 두 음절의 한자로 써 보자.
그녀는 평생 써 온 그날의 기록을 정리하여 책으로 출판하였다.

'그날의 기록'을 두 음절의 한자로 쓰기 위해서는 단어의 짜임 중 '수식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항이다.

아래는 A-1교과서에서 단어의 짜임관련 평가문항이다.[69]

다음 한자 어휘에 알맞은 뜻을 바르게 연결해 보자.	
(1) 父母 ·	· ㉠ 형과 아우.
(2) 兄弟 ·	· ㉡ 아버지와 어머니.
(3) 姉妹 ·	· ㉢ 손위 누이와 손아래 누이.

단어의 짜임 중 병렬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와 단어들의 뜻에 바르게 연결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단어의 짜임을 묻고 있기보다는 학습자가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다음은, B교과서에서 '단어의 짜임을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한 단원의 평가문항이다.[70]

본문에 쓰인 한자를 활용한 단어들이다. '~와(과) ~'로 풀이되는 것에는 ○ 표시를 하고, '~의(하는) ~'로 풀이되는 것에는 □표시를 해 보자.
花鳥　黃鳥　山花　鳴鳥　紅花

먼저 '~와(과) ~'로 풀이되는 것과 '~의(하는) ~'로 풀이되는 단어의 짜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단어의 짜임 중 '~와(과) ~'는 병렬 관계를 의미하고, '~의(하는) ~'은 수식 관계를 의미 한다. 병렬 관계와 수식 관계의 단어의 짜임을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아래는 B-1교과서의 평가문항이다.

68) 송재소 외 4인(2010), 앞의 책, 39쪽.
69) 송재소 외 4인(2013), 앞의 책, 29쪽.
70) 박성규 외 3인(2010), 앞의 책, 40쪽.

dCollection @ chosun

‘靑山’과 단어의 짜임이 다른 것은? ①上下 ②百花 ③四季 ④黃鳥 ⑤必勝

‘靑山’의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항이다. ‘靑山’의 단어 짜임이 ‘수식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알아서 ‘수식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닌 것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

(2)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알 수 있다.

아래는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하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표52> 2007개정『한문1』에서 품사의 종류와 특성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	
B	11. 황금 보기를 돌같이
C	九. 仁義, 十. 君子之言 十一. 一年之計 十二. 百行之源

A교과서에서는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나와 있지 않다. B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문항도 제시되어있다. C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4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3개의 단원에만 제시되어있다.

<표53> 2009개정『한문1』에서 품사의 종류와 특성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B-1	12. 푸른 물감은 쪽보다 푸르다
C-1	15. 해는 어디에서 뜰까? 27. 허풍 대결 28. 올빼미가 동쪽으로 간 까닭 29.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본다면 30. 도대체 책 속에 무엇이 있기에 31. 내 손이 에는 듯 32. 공자 36. 안창호

dCollection @ chosun

A-1교과서에서는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나와 있지 않다. B-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문항도 제시되어있다. C-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8개의 단원이지만,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4개의 단원에만 제시되어있다. 위의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A와 A-1교과서는 한자어의 품사에 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품사'적 분류라는 자체가 한문교육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먼저, B교과서에서 품사의 종류와 특성관련 평가문항을 살펴보자.[71]

□ 안에 들어갈 허사를 본문에서 찾아 써 보자. · 忠言, 逆□耳, □利□行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함에는 이롭다.

한문의 단어는 문장 안에서 쓰임이 달라지고, 품사가 바뀌기도 한다. 여기서는 '於'의 쓰임을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於'는 '~에서'라는 장소의 의미인 개사로 쓰였고, '㉡於'는 '~보다'라는 비교의 의미인 개사로 쓰였다.

아래는 B-1교과서에서 품사의 종류와 특성관련 평가문항을 살펴보자.[72]

(가)문장에서 밑줄 친 ㉠과 ㉡의 쓰임을 구별해 보자. (가)靑, 取之㉠於藍, 而靑㉡於藍.

한문의 단어는 문장 안에서 쓰임이 달라지고, 품사가 바뀌기도 한다. 여기서는 '於'의 쓰임을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於'는 '~에서'라는 장소의 의미인 개사로 쓰였고, '㉡於'는 '~보다'라는 비교의 의미인 개사로 쓰였다.

다음은, C교과서에서 품사의 종류와 특성관련 평가문항을 살펴보자.[73]

다음 풀이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한자를 써 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자. (1)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溫故□知新.

한문 문장의 풀이를 보고 한문 문장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를 쓸 수 있는지 평가

71) 박성규 외 3인(2010), 앞의 책, 62쪽.
72) 박성규 외 3인(2013), 앞의 책, 93쪽.
73) 김용재 외 3인(2010), 앞의 책, 63쪽.

dCollection @ chosun

하는 문항이다. '~해서'라고 풀이되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한자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항이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C-1교과서의 품사의 종류와 특성관련 평가문항을 살펴보자.[7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아내: 不有商乎? 허생: 商, 無本錢, ㉠奈何? 아내: 晝夜讀書, 只學奈何. 不工不商, 何不盜賊? ㉠을 바르게 풀이해 보자. ・奈何:_____

'奈'는 의문이나 반어를 나타내는 대명사로 '어찌'라는 뜻을 가지고, '何'는 의문이나 반어를 나타내는 대명사로 '무엇', '어찌'라는 뜻을 가진다. '奈'와 '何'의 쓰임을 알고,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위의 두 문항은 엄격히 말한다면, '품사'관련 문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허자'의 활용을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하여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품사를 학습목표로 내세웠다면 좀 더 구체적인 평가문항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성어의 겉뜻과 속뜻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성어의 겉뜻과 속뜻을 이해할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하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표54> 2007개정『한문1』에서 성어의 겉뜻과 속뜻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	五. 朝三暮四, 六. 五十步百步
B	6. 독서
C	五. 春風暖, 六. 朝雲白

A교과서에서는 '성어의 겉뜻과 속뜻을 이해할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

74) 김용재 외 3인(2013), 앞의 책, 199쪽.

Collection @ chosun

원은 2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B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제시되어있다. C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2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표55> 2009개정『한문1』에서 성어의 겉뜻과 속뜻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5. 나의 학교생활 6. 절기와 풍속
B-1	6. 내 코가 석 자 7. 풀을 묶어 은혜를 갚다 8.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 9.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다
C-1	13. 꽃이 피고 지고 14. 앞마당의 암탉 17. 봄, 여름, 가을, 겨울 18. 세월이 흘러도

A-1교과서에서 '성어의 겉뜻과 속뜻을 이해할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2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B-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4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C-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4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B-1, C-1 교과서는 성어관련 내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A교과서의 성어관련 평가문항을 살펴보자.[75]

다음 현관 출입 열쇠에서 각각의 힌트를 만족하는 단어를 찾아 그 비밀번호를 써 보자.

힌트 · 간사한 꾀로 남을 우롱하고 속이는 경우를 빗대어 이르는 말

□□□□

1 夕	2 學	3 朝
4 孝	5 四	6 木
7 暮	8 三	9 七

성어의 속뜻을 보고 1~9에 써진 한자를 이용해 성어를 써 보는 문항이다.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현관 출입 열쇠를 맞추기 위해 성어가 들

75) 송재소 외 4인(2010), 앞의 책, 55쪽.

dCollection @ chosun

어갈 자리에 번호를 써서 비밀번호를 써보도록 하였기 때문에 평가문항에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래는 A-1교과서의 성어관련 평가문항이다.[76]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보기> 三人成虎　登龍門　狐假虎威　馬耳東風 다음 속뜻과 관련 있는 성어를 보기에서 찾아 써 보자. (1)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 부림. (2)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흘려버림. (3)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됨.

성어의 겉뜻이 아니라 속뜻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평가문항이다. (1)~(3)에 나온 성어의 속뜻을 보고, 속뜻과 관련 있는 성어를 <보기>에서 보고 써보는 문항이다. 가장 일반적인 성어의 의미를 평가하는 문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제시되었던 현관 번호키를 찾는 문항만큼의 신선도는 떨어진다고 하겠다.

다음은, B 교과서에서 성어관련 평가문항이다.[77]

다음은 본문에 나오는 성어의 겉뜻과 속뜻이다. 빈칸을 채워 보자.

성 어	겉 뜻	속 뜻
聞一知十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앎.	
溫故知新		옛것을 익혀서 그것을 미루어 새로운 이치를 알아냄.

이 문항도 단순히 성어의 겉뜻과 속뜻을 써서 빈칸을 채우도록 하는 평가 문항이 되어버렸다. 학습자의 단순지식을 평가하는데 그치고 말 것이다. 반면 다음 B-1 교과서의 경우는 지문을 활용하여 성어의 뜻을 평가하고 있다.[78]

76) 송재소 외 4인(2013), 앞의 책, 57쪽.
77) 박성규 외 3인(2010), 앞의 책, 36쪽.
78) 박성규 외 3인(2013), 앞의 책, 67쪽.

dCollection @ chosun

다음 기사를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성어를 본문에서 찾아 써 보자.

> 경상남도 ○○군은 공무원과 민원인이 서로 역할을 바꿔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 3시간 정도 공무원 체험을 마친 ○ 씨는 공무원이 된 느낌에 대해 "민원 창구 공무원으로서 체험 활동을 통해 서로 처지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언어생활에서 쓰이는 성어의 뜻을 파악하여 본문에서 찾아 써보도록 한 것이다. 성어의 겉뜻과 속뜻뿐만 아니라 성어가 언어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도록 한 평가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B교과서의 평가문항 보다는 훨씬 학습자의 호기심을 일으키고, 나아가 언어활용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C 교과서에서 성어관련 평가문항이다.[79]

다음 글을 읽고, 제시된 뜻에 알맞은 성어를 써 보자.

> 윤봉길 의사는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을(를) 하였다. 또 뜻이 맞는 청년들과 함께 '부흥원'이란 야학(夜學)을 열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한글을 가르치는 등 농촌 계몽 운동에 앞장섰다.

·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글을 읽음.

윤봉길 의사의 일화를 소개하는 글에 고사성어가 활용되어 있다. 내용과 관련있는 성어를 쓸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제시된 뜻은 성어의 겉뜻을 제시하였지만, 글의 내용을 읽고 알맞은 성어를 쓰기 위해서는 성어의 속뜻까지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평가문항을 통하여 학습자는 성어의 언어생활 활용을 익히게 된다.

아래는 C-1교과서에서 성어관련 평가문항이다.[80]

79) 김용재 외 3인(2010), 앞의 책, 35쪽.
80) 김용재 외 3인(2013), 앞의 책, 120쪽.

dCollection @ chosun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성어를 골라 보자.

허허벌판이던 땅에 거대한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선 것을 보니 (　　)을/를 금할 수 없었다.

①虛送歲月 ②天長地久 ③朝令暮改 ④ 今昔之感 ⑤東西古今

다음도 위의 평가문항과 마찬가지로 언어생활에 활용된 성어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문항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알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답으로 제시된 ①~⑤의 성어는 겉뜻만 아니라 속뜻까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3. '문장'에 대한 평가

한문 지식 영역의 '문장'은 문장의 구조, 문장의 유형 등 문장과 관련된 기초적인 한문 지식의 성취와 그 활용에 중점을 둔다.[81]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문장'에 대한 내용과 학습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56>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문장 영역 내용과 학습내용

내용	학습내용
문 장	문장의 기본 구조를 알 수 있다.
	평서문・의문문・명령문・감탄문의 특징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

'문장' 학습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의 일정한 결합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문장의 구조가 나타난다. 주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주술 구조, 주술목 구조, 주술보 구조, 주술목보 구조 등의 문장의 구조 등이 있다.[82] 문장이 어떠한 성분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하여야 문장이 어떤 구조인지 알 수 있다. 문장의 유형은 화자(話者)가 나타내는 어기(語氣)를 기준으로 평서문・의문문・명령문・감탄문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장의 유형의 특징을 알고 구별할 수 있어야한다.

81)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18쪽.
82)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책, 15쪽.

dCollection @ chosun

(1) 문장의 기본 구조를 알 수 있다.

아래는 '문장의 기본 구조를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하는 교과서의 단원을 조사한 표이다.

<표57> 2007개정『한문1』에서 문장 구조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원
A	四. 家族 七. 三歲之習 十. 除夕
B	9. 가는 말이 고와야 10. 열 명이 못 지킨 한 도둑 11. 황금 보기를 돌같이
C	三. 花開 四. 春風暖 七. 月落西山 八. 上有天

A교과서에서 '문장의 기본 구조를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3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1개의 단원에만 제시되어있다. B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3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C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4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모두 문장관련 학습목표를 제시한 단원이 3개정도 이다. 이는 중학교 한문교과서에서 문장을 다룰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 것이다. 그것을 2009년 개정교과서와 비교해 보겠다.

<표58> 2009개정『한문1』에서 문장 구조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1	10. 우정과 관련 있는 성어 11. 俗談 속담 13. 名言·名句 명언·명구 17. 兄弟投金 형제투금
B-1	6. 내 코가 석자 7. 풀을 묶어 은혜를 갚다 8.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 9.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다
C-1	13. 꽃이 피고 지고 14. 앞마당의 암탉 15. 해는 어디에서 뜰까?

A-1교과서에서 '문장의 기본 구조를 알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4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모두 제시되어있지 않다. B-1교

dCollection @ chosun

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4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C-1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3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2007년 개정교과서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학습비중이 커진 것이 부각된다. 한문 문장의 독해를 중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육목표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먼저, B교과서에서 문장의 기본 구조관련 평가문항을 살펴보자.[83]

> 아래 제시된 본문 문장에서 A를 참고하여 B의 (　　)안을 채워 보자.
>
> A: 三人　成　虎　B: 一魚　能混 一川水
>
>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　　) (　　) (　　)

주술목 구조로 되어있는 문장을 문장 구조에 알맞게 풀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특히 한문과 우리말의 어순이 다른 것에 중점을 두고 풀이하게 하고 있다. 서술어와 목적어 순으로 되어있는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아래는 B-1교과서에서 문장의 기본 구조관련 평가문항이다.[84]

> 다음 글을 일고, 물음에 답해 보자.
>
> (가)結草報恩 (나)種豆得豆 (다) 結者解之
> (라)遠水, 不球近火. (마) 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道.
>
> (가)~(다)에서 뽑은 어구 중 목적어가 쓰이지 않은 것은?
> ①結草 ②報恩 ③種豆 ④結者 ⑤解之

문장에 쓰인 어구를 뽑아 ①~⑤의 보기로 제시하였다. 문장의 기본 구조 중에서 목적어의 쓰임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①~⑤의 어구 중에서 목적어가 쓰이지 않은 어구를 고르는 평가 문항이다.

다음은 C교과서에서 문장의 기본 구조관련 평가문항을 살펴보자.[85]

83) 박성규 외 3인(2010), 앞의 책, 58쪽.
84) 박성규 외 3인(2013), 앞의 책, 57쪽.
85) 김용재 외 3인(2010), 앞의 책, 39쪽.

dCollection @ chosun

다음 시를 감상하고, 밑줄 친 부분에 어울리는 문장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자.

빈산에 사람은 없으나,
(1)물은 흐르고 (2)꽃은 피네.

<보기> 花開 春來 水流 花落

(1) _____ (2)_____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되는 어구를 찾는 것이다. 주술구조의 결합방식을 묻고 있기 보다는 문장의 풀이와 문장을 연결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는 C-1교과서에서 문장의 기본 구조관련 평가문항이다.[86]

다음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飮酒人顔赤, 食草馬口(　　).
(1) 목적어에 해당하는 한자를 두 개 찾아 써 보자.
(2) 괄호 안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을 골라 보자.
[白, 黑, 靑, 赤 丹]

한시의 대구를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항이지만, 목적어를 명시하여 술목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을 이해하고, 문장 속에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으로 되어있다. 2009년 개정의 C-1교과서의 경우가 보다 문장 구조에 학습목표를 두고 평가문항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2) 평서문・의문문・명령문・감탄문의 특징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

'평서문・의문문・명령문・감탄문의 특징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는 '문장의 유형을 안다'의 내용과 유사하다. 단 2007년 개정 교과서의 경우는 1학년에는 이런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평서문・의문문・명령문・감탄문의 특징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하는 교과서의 단원 조사는 2009년 개정교과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86) 김용재 외 3인(2013), 앞의 책, 95쪽.

dCollection @ chosun

<표59> 2009개정『한문1』에서 문장의 유형관련 학습목표가 제시된 단원 조사

교과서	단 원
A	12. 格言 격언 14. 綿花最好 면화최호 19. 讀圖 독도 34. 許生傳 허생전
B	17. 마음이 있지 않으면 18.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19. 나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 20. 남에게 너그러운 사람 22. 가장 좋은 꽃
C	33. 맹자

A교과서에서 '평서문・의문문・명령문・감탄문의 특징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4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B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모두 5개의 단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도 모두 제시되어있다. C교과서에서 학습목표로 제시한 단원은 1개의 단원뿐이며, 학습목표와 관련된 평가문항은 없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드러나는 것은 C교과서 집필진들이 한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통문장으로 현토하여 읽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A-1교과서에서 문장의 유형관련 평가문항을 살펴보자.[87]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許生, 掩卷起曰: "㉠惜乎!吾讀書, ㉡本期十年, 今七年矣."

㉠을 풀이하고, 문장의 형식을 써 보자.

㉡의 뜻을 써 보자.

학습자가 감탄문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평가문항이다. 감탄문은 주로 '乎, 哉' 등 감탄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조사를 사용한다. 이처럼 문장의 어감을 학습자가 파악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문항이 제시되었다.

다음은 C-1교과서에서 문장의 유형관련 평가문항을 살펴보자.[88]

87) 송재소 외 3인(2013), 앞의 책, 235쪽.
88) 박성규 외 3인(2013), 앞의 책, 141쪽.

dCollection @ chosun

다음 빈칸에 '~하지 마라'는 뜻의 한자를 써넣어 문장을 완성하고자 할 때, 알맞은 것은?

□謂今日不學而有來日.

①而 ②勿 ③ 能 ④不 ⑤之

학습자가 명령문의 특징을 알고 '~하지 마라'고 뜻하는 한자를 찾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것은 '허자'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손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항이기도 하다. 이처럼 아직 문장의 형식을 평가문항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직 기초적 단계의 문항에서 단순지식을 평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좀 더 학습자가 다양한 문장형식을 이해하고 문장완성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평가문항의 개발이 요구된다.

dCollection @ chosun

Ⅵ. 결론

교육과정 중에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은 항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평가는 소홀하게 자리매김 되기가 일쑤였다.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교과서는 학습목표를 적시하고 그에 따른 교육내용과 평가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교과서 구성의 적어도 25% 정도는 평가가 차지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과정의 개정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평가문항의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이러한 의도를 갖고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과서 평가문항과 2009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교과서 평가문항을 비교하여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변화가 중학교 1학년 한문교과서 평가문항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한문 교과서에 학습평가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Ⅱ장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분석해보면서 어떠한 변천양상을 드러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한문'과 '한문지식' 두 영역으로 분류되었지만,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문' 영역이 '독해'와 '문화'로 분류되면서 '독해', '문화', '한문지식'의 세 영역 체제가 되었다. 이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은 그 이전의 한자어 중심의 교육에서 한문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었다면, 2009년 개정교육과정은 당시 트렌드인 '문화'가 강력하게 영향을 발휘하였다고 생각된다. 당연한 결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요소에도 변화가 있었다. 2007년이 '한문'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단문', '산문', '한시' 등 한문 장르별 학습을 우선시 하였던 것에 비하여, 2009년에는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등 한문을 언어적 학습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나아가 한문을 접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보인다. 2007년에는 한문 문장을 독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2009년에는 독해를 너머서 한문을 통하여 세계를 접하는 이해와 실천에 중점을 두었다.

dCollection @ chosun

Ⅲ장에서는 중학교 1학년『한문』교과서 단원에 나와 있는 '독해'영역 평가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방법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교육과정 양쪽에 집필진으로 참가한 교과서를 3종류 선택하여 각 교과서가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Ⅳ장에서는 중학교 1학년『한문』교과서 단원에 나와 있는 '문화'영역 평가에 관한 분석을 하였고, Ⅴ장에서는 중학교 1학년『한문』교과서 단원에 나와 있는 '한문 지식'영역에 평가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독해'영역은 '읽기'와 '이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읽기'에서는 읽기의 학습내용이 단순히 읽기라고 제시하기 보다는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띄어 읽을 수 있다', '끊어 읽을 수 있다' 세분화되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에서도 학습목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단원이 많아졌지만, 평가문항의 유형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해'에서는 '문화'영역은 '한자 문화'와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문화'영역은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문'영역에서 속해있었지만,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하나의 대영역으로 독립되었다. 교과서의 단원에 '한자 문화'관련 학습목표가 많아진 것으로 보아 '문화'영역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은 새로운 학습내용으로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별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언어생활에서 학습자가 한문을 학습을 통하여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배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문 지식'영역은 '한자', '어휘', '문장'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자'는 한문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루고 있다. 기본적인 지식을 다루는 학습으로 큰 단원이나 평가문항에서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어휘'에서는 '성어'을 다루는 단원이 많아 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어'와 관련된 평가문항의 수도 많아졌다. 단순히 성어의 속뜻과 겉뜻을 묻는 유형보다도 성어의 숨은 뜻을 파악하고, 일상 언어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 많아졌다. '문장'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3학년에서 다루어지던 '문장의 유형'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의 학습목표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가 한문을 학습할

dCollection @ chosun

때 문장의 유형이 한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장의 유형을 묻거나 문장의 유형에 들어갈 알맞은 어조사를 넣을 수 있는 문항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체계의 변화가 중학교 1학년『한문』교과서의 평가문항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평가는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의 학습 성취기준을 학습자가 도달하였는지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한문과 내용 영역별 평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문과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dCollection @ chosun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2011.

교육부,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김경익, 「漢文科 評價 硏究의 成果와 展望」, 『한문교육연구』 37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1.

김왕규,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문화'영역의 내용 분석과 향후 과제」, 『한문교육연구』 39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2.

박성규, 「한문과 평가의 문제와 그 지향점」, 『한문교육연구』제19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12.

송영일, 「한문 교육 평가 방법과 실제적 적용」, 『한문교육연구』제10호,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1.

안재철,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의 문제점」, 『한자한문교육』 24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0.

원용석, 「개정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고찰」, 『강원문화연구』 26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7.

윤재민,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내용 분석과 향후 과제」, 『한문교육연구』 39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2.

_____, 「韓國의 2011年 改定 漢文科 敎育課程의 具體的 內容 分析」, 『한자한문교육』 28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2.

송병렬,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읽기' 영역의 내용 분석과 향후 과제」, 『한문교육연구』 39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012.

한예원, 「중학교 한문과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문교육연구』 제19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dCollection @ chosun

장호성・김경익,『한문과 평가론』, 보고사, 2012.
송재소 외 4인,『한문1』, 다락원, 2010.
박성규 외 3인,『한문1』, 두산동아, 2010.
김용재 외 3인,『한문1』, 더텍스트, 2010.
송재소 외 4인,『중학교 한문』, 다락원, 2013.
박성규 외 3인,『중학교 한문』, 두산동아, 2013.
김용재 외 3인,『중학교 한문』, 와이비엠, 2013.

2. 논문

강주현,「중학교 한문과 학습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고승희,「중학교 한문과 학습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노현숙,「漢文敎科 평가 문항에 관한 연구 : 중학교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류지은,「고등학교 한문의 평가문항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배정화,「第 7次 漢文敎科書 評價問項의 類形 分析 : 中學校 1學年 敎科書를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안명숙,「창의력 신장을 돕는 중학교『한문』평가 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윤성필,「제7차 고등학교『한문』의 평가문항 비교 연구 : 학습목표 반영도 및 평가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장현주,「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한문교과서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조성균,「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한문1』교과서 영역별 내용 분석」,

dCollection @ chosun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허연구,「漢文科 領域別 評價 問項 類型의 硏究」,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dCollection @ chosun